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October 20, 2016 Vol. 550

수단서 '국가안보 위반' 혐의 받는 기독교인 위한 기도 절실


파괴된 수단 교회의 모습.

현재 2명의 목사와 체코 출신의 선교사를 포함한 4명의 기독교인이 수단 하르툼에서 '국가안보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유죄가 입증된다면 사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공판은 지난 9월 26일 예정이었으나 계속 연기되고 있다. 재판은 한번 시작되면, 판결이 나오기까지 6주 정도 걸린다.

재판 중인 이들은 수단 그리스도교회 소속인 하산 압둘라힘(Hassan Abduraheem) 목사, 쿠와 샤말(Kuwa Shamal) 목사, 체코 국적의 피터 야섹(Petr Jasek) 선교사, 수단 출신인 압둘모님 압둘마우라(Abdulmonem Abdumawla)이다.

야섹 선교사의 가족들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전해달라며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 요청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회장인 폴리 현숙 박사는 "우리는 말 그대로 이들의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목사와 선교사, 그리고 한 수단 사람이 부상 중이던 다르푸르 현지인 알리 오멀(Ali Omer)씨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점"이라며 "이 사람들은 간첩이 아니다. 반란을 선동하려던 것도 아니었다. 그들에겐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도 없었다. 4명 모두 누군가를 섬기고 도우려 했을 뿐이다. 이들은 모두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10면에 계속]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최규남 총장 취임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총장에 최규남 목사가 취임했다. 테메큘라 갈보리교회를 13년간 담임하면서 동시에 이 대학교 부총장으로 10년간 재임한 그는 초대총장 김광신 목사에 이어 제2대 총장에 취임했다.

최 총장은 서강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루이지애나대학교를 거쳐 뉴멕시코대학교에서 레이저 물리학으로 Ph.D. 학위를 취득하고 군사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그후 김광신 목사의 인도를 받아 목사로의 소명을 확인하고 웨스트민스터대학교, 풀러신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등에서 신학 및 선교학을 공부했다.

17일 은혜한인교회 미라클센터에서 열린 취임예배에서 최 총장은 "김광신 목사님의 영적 유산을 잘 이어받아 더욱 선교에 힘쓰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1995년 설립돼 현재까지 600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졸업생의 40%가 해외 선교사로 파송됐을 정도로 선교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 산하 신학교로 최근 5년 만에 ABHE, TRACS, ATS의 정회원 인가를 모두 획득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은 김광신 목사가 "선교는 왜 해야 하나"란 제목으로 설교했고 이사장 한기홍 목사가 김광신 목사에게 공로패를, 최규남 총장에게 취임패를 전달했다. 한기홍 목사는 "교회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는 오늘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과 같은 일꾼을 배출하는 샘물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월드미션대학교의 송정명 총장, ITS의 이승현 총장이 각각 축사를 전했다. 이 총장은 "탁월한 전임자의 뒤를 잇는 일은 어깨가 매우 무거운 일이다. 최 총장님은 학교를 더욱 성장, 성숙시키며 소수민족 학교에 그치지 말고 미국을 위해 어떻게 이바지 할 수 있는 학교가 될지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준형 기자



한기홍 이사장(왼쪽)이 최규남 총장에게 취임패를 전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총장 취임예배가 17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구령 위한 성령의 역사

장재효 목사 초청…목회자 세미나 개최

서울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의 특별 목회자 세미나가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엄규서 목사) 주최로 "구령 성과를 위한 성령의 역사" 주제 아래 17일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장재효 목사는 자신의 46년 목회 가운데 있었던 영혼 구원 사건과 기적적 사건들을 언급하며 "목회자들이 성령에 이끌려 사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로교 목회자인 장 목사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롬8:9),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버림 받은 자다(고후13:5),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전12:3)"고 말하며 "지금은 성령 사역의 시대"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목사 중에도 목자가 아닌 종교 직업인이 있다"고 비판하며 "목사일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사역은커녕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양떼들도 실족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美대선, 국가 未來에 미칠 影響

미국대통령선거가 '나라의 미래와 직결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차기 대통령이 많게는 4명의 연방대법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공화당의 도날드 트럼프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들 가운데는 이 때문에 자신들의 후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는 11월 8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9명의 연방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미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며 미국 사회의 방향을 정해왔다. 지난해 6월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대표적인 예로 그 판결 후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당시 동성결혼 케이스는 5대 4 판결로 합법화되었는데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4명의 보수적 연방대법관과 이를 찬성하는 5명의 진보적 연방대법관의 입장 차이에 따라 판결이 나왔다. [관련기사 11면에 계속]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차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12월 15일(예비지원서[PRE-APPLICATION]은 11월 1일)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세미나를 주최한 남가주한인목사회 임원들과 (앞줄 오른쪽으로부터 네 번째)장재효 목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령 위한 성령의 역사

남가주한인목사회 장재효 목사 초청…목회자 세미나 개최

[1면으로부터 계속] 그러면서 거"라고 일갈했다.

"진정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목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고 물으신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대답 외에 박사, 총장, 총회장을 더 좋아한다면 우리가 삯꾼이라는 증

끝으로 그는 "이제는 주님께서 저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른다"면서 "여기 있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성령을 좇아 목회하라"고 당부했다.

장재효 목사의 특강 후 논찬을 맡은 송영일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부회장)는 "강의를 들으며 마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며 성령에 사로잡히는 목회를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날 엄규서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는 장재효 목사에게 세미나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준형 기자



매주 열리는 작은 '행복축제' 참여자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활짝 웃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 전해요

남가주벧엘교회 '행복축제' …따뜻한 사랑의 교제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남가주벧엘교회 담임 오병익 목사(본지 이사장) 가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분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이는 조촐한 '행복축제'가 열린다.

이날은 특별히 세라 오 사모가 직접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한다. 오 사모는 많은 음식을 손수 마련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기에 오히려 행복하고 기쁘다고 한다.

이 시간에는 김치찌개와 돼지갈비, 북어찜 등 푸짐한 음식을 맘껏 즐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안에서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이뤄진다.

집밥이 그립고,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반갑게 환영받는 자리이다.

*주소: 5600 Crecent Ave, Buena Park, CA 90620
*문의: 세라 오 사모 (714-801-1625)

권 쉘비 기자



선교집회를 마친 성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랑의띠선교교회 주최…고창수 목사 초청 LA선교집회

사랑의띠선교교회(담임 김천환 목사) 주최 고창수 목사(한국 엘림장애인선교회 사무총장) LA선교집회가 13일 저녁 이 교회 본당에서 개최됐다.

사랑의띠선교교회는 한국 엘림장애인선교회 LA지부이다.

김천환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집회는 임상철 목사 기도, 김민경 선교사와 카이로스 율동팀의 몸찬양, 필란나눔동산교회 찬양팀의 특별찬양, 고창수 목사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고창수 목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벧전4:7~11) 주제의 설교를 통해 지난 34년여 간 장애인 영혼 구령사역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간증하며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설교 후에는 소프라노 에스터 진 선교사를 엘림장애인선교회 미주 찬양 선교사로 임명하는 순서도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유창렬 목사(필란나눔동산교회 담임)의 축도를 끝으로 모든 집회가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문의: 213-736-6625

이영인 기자

이 시대를 깨우고 회복하는 부흥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샌디에고에서 12월 20일~23일까지

순 무브먼트(KCCC)가 매년 말에 개최하는 하이어 콜링(Higher Calling) 컨퍼런스가 오는 12월 20일~23일까지 샌디에고 타운앤컨트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청년대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인생을 더 높은 소명을 향해 헌신케 하는 이 컨퍼런스는 매년 수많은 선교 헌신자들을 배출해 왔다. 올해의 주제는 리서전스(Resurgence, 에스겔37: 5~6절)다.

순 무브먼트의 LA 지역 대표인 이영복 간사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며 희망과 삶의 목적을 잃고 있다"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주 간사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청년들이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다. 우리는 이 청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깨우고 회복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순 무브먼트가 속해 있는 미국 크루(Cru)의 국제선교 디렉터인 셰인 세바스찬, 하이랜드 코너스톤교회의 데이빗 오 목사, 순 무브먼트의 미주 대표 김동환 목사, 기독교 변증가이자 저술가인 션 맥도웰 등이 강사로 나선다.

이번에 강사로 초대된 제시카 해리스는 포르노 중독에서 해방된 후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 다양한 성적 이슈들을 다루는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순 무브먼트는 청년 대학생들 안에 있는 영적 갈등, 삶의 상처 등에 주목하며 청년들이 이 컨퍼런스를 통해 치유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청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highercallingl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 고위층 망명자 강명도 교수 간증집회

10월 26일(화)~11월 6일(주일)까지

오렌지카운티한인회(회장 김종대 장로) 주최 강명수 교수 간증 집회가 열린다. 강명수 교수는 전 북한 강성산 총리 사위이며 인민무력부 정치보위대학 연구실장(교수) 대좌를 지냈다. 그는 1994년 5월 대한민국으로 귀순했고 현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3년에 재학중이며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선교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써비스
LA Torrance Irvine
500 Shatto Place, Suite 20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949)329-8222
Email: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주은혜교회가 16일 창립예배를 드렸다.

참된 교회, 천국같은 교회되라

주은혜교회 창립예배 드려

주은혜교회가 16일 오후 창립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출발했다.

최호년 담임목사는 "사도 요한이 주님께 받은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처럼,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 환란과 핍박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서창권 목사(시카고한인교회 담임)는 '천국 같은 교회'(행2:41~47) 제목의 설교를 통해 "참된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시작됐다"라며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스도의 의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기쁨이 넘쳐 구원 받는 사람이 날마다 넘쳐나는 잔칫집과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김윤식 장로(시카고한인교회)는 "시카고한인교회에서 전도사 시절부터 열심히 사역하며 교회 부흥에 앞장섰던 최 목사님의 성실함과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주은혜교회가 큰 부흥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예배는 최호년 목사가 예배를 인도했고 배효숙 장로가 기도했다. 안영수 목사(주은혜교회)가 봉헌기도를 했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워십댄스를 했으며 이준수 목사(남가주밀알선교단)가 축도했다.

최호년 목사는 미국장로회(PCA) 소속 시카고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 미국장로교(PCUSA) 소속 파사데나장로교회 한인회중 담당목사로 부임했다. 그러나 자신의 목회 철학과 미국장로교의 신학적 방향 간의 차이로 인해 지난 4월 사임한 바 있다.

주은혜교회는 주일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리며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성경공부를 한다.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에 성경공부 및 기도회를 한다.

*주소: 4469 Chevy Chase Dr. La Canada Flintridge, CA 91011

*전화: 626-404-4493

이인규 기자



2015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참여자들 모습.

사랑과 나눔의 실천

2016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신청 접수

오픈뱅크(민김 행장)의 수익의 10% 사회환원' 실천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한인사회에 새로운 사회환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픈청지기 프로그램(Open Stewardship Program)이 올해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간다.

오픈뱅크가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오픈청지기재단(open Stewardship Foundation)은 오는 11일부터 2016년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픈청지기재단은 오는 11월30일까지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서류심사와 현장 방문,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 뒤 독립적인 심사위원들이 참여하는 최종 심사를 거쳐 내년 2월말에 지원 프로그램 선정을 마친 후, 예전과 마찬가지로 내년 3월 중 지원금을 전달한다.

한편 신청서는 오픈청지기재단 웹사이트(www.openstewardship.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와 내용도 이 신청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문의:213-593-4885



수상 직후 기념촬영. (오른쪽에서 네 번째)양태철 목사.

양태철 목사 시인 등단

상록수문예인협회 신인상 수상

양태철 목사(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및 본부선교사)가 '시인'으로 등단했다. 양태철 목사는 최근 한국의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상록수 문예마당 제160회 정기시낭송회'를 통해 신인상을 수상하고, 그의 아름다운 시가 낭송됐다.

상록수문예인협회 대표 최세균 목사는 심사평을 통해 "양태철 목사가 멀리 미국에서 권유적이고 해석적인 진술형 작품 11편을 보내왔다"고 밝히고, "미국에 있으면서 시야를 세계로 넓혀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등을 섭렵하며 획득한 것을 시로 옮기는 능력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라고 평했다.

이어 최 목사는 "그 가운데 '옥스포드 Sandford의 The Kings Arms 카페에서' '아일랜드 Downpatrick에서의 감화' '봄이 오는 길목의 오사카 성을 돌아보며' 등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여행작가로서 순례자 시인의 입지를 굳건히 세워갈 여지가 적지 않음을 보여줬다"면서 "상록수문학의 세계화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 이야기했다.

양태철 목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를 배우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사춘기 시절 '고문진보'(古文眞寶)라는 중국 시선 집을 통해 중국 한시를 알게 됐으며, 시의 매력에 빠진 후, 시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고 있었다"면서 "고2 때부터 시를 스스로 지어 시인의 마음을 품고 살아왔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귀한 상록수 문예인 협회에 시인으로 등단이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전했다.

김규진 기자



과거에 열렸던 미자립교회를 위한 무료교사 세미나 모습.

미자립교회 위한 무료 교사 세미나

지저스키즈 주최…효율적인 주일학교 운영법 알려줘

열악한 교회 어린이교회학교(유년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무료 교사 세미나 가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55곡의 어린이 찬양 비디오와 6개월분 성경공부 교재를 USB에 담아 무료 배부한다.

또한 어린이교회학교 지도를 위한 강의와 할로윈, 추수감사절, 성탄절 CRAFT가 준비된다.

이번 특강으로는 풍선 만들기 강의가 진행된다. 모든 비용은 무료이며 간식이 준비된다.

▲ LA지역

*일시: 10월 22일(토) 12시~4시

*장소: 올림픽장로교회

*주소: 3020 Wilshire Blvd. LA, CA 90010

▲ OC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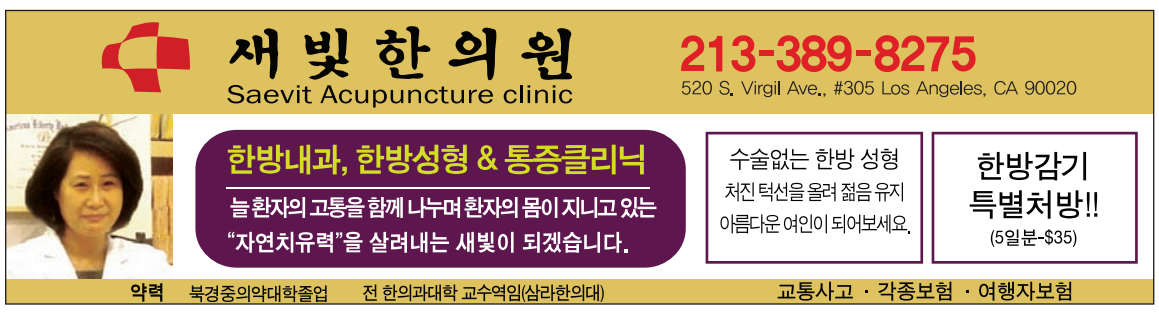
*일시: 10월 29일(토) 1시~5시

*장소: 훌러톤장로교회

*주소: 511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문의: 임은희 전도사 (213-422-0022)











서울영안교회 지교회로 출발한 뉴욕영안교회에 대한 파송예배가 2일 서울영안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뉴욕영안교회 김경열 목사(왼쪽)가 서울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오른쪽)에게 본교회 건축헌금을 전달했다.

"본교회에 건축헌금 드린 지교회"

지교회 뉴욕영안교회…본교회 서울영안교회에 건축헌금 전달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사)는 뉴욕에 처음 세워진 한국 대형교회의 지교회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으며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서울영안교회(담임 양병희 목사)는 올해 초 뉴욕 지교회 설립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뉴욕영안교회의 시작을 알렸고, 최근 서울영안교회는 뉴욕영안교회 담임 김경열 목사의 파송예배를 드리면서 해외 지교회에 대한 비전을 더욱 분명히 했다.

뉴욕영안교회의 앞으로의 행보는 향후 뉴욕에 세워질 수 있는 한국 지교회들의 모델이 될 수 있어 서울영안교회 지교회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미주 지교회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줘야 할 책임도 함께 맡고 있다.

뉴욕의 이민목회는 뉴욕 이민사회의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그 자체를 선교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험난한 선교지와 같은 이민목회 현장 가운데 한국의 지교회가 펼쳐가는 사역은 해외 디아스포라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는 한국의 교회들에게도 주목되고 있다.

최근 뉴욕영안교회는 지교회들이 본교회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틀에서 벗어나는 신선한 행보를 보여줬다. 본교회인 서울영안교회가 성전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뉴욕영안교회 성도들이 본교회를 위한 성전건축 헌금을 모았고 2일 주일저녁에 드린 파송예배를 통해 본교회에 성전건축 헌금을 전달했다.

지교회의 본교회 성전건축 헌금 소식은 담임 양병희 목사를 비롯한 많은 교회 관계자들과 본교회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김경열 목사는 "뉴욕의 지교회가 단지 지원만 받는 구조가 아닌 영적으로 본교회와 하나가 돼 모든 사안을 함께 웃고 울며 한 몸을 이루고자 했다"며 "본교회와 지교회 성도들이 매일 새벽마다 서로를 위해 한 교회와 같이 기도해주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뉴욕기독일보]



디딤돌선교회(대표 송요셉 목사) 제14차 재활 및 영성수련회가 3일~6일까지 다니엘 기도원에서 열렸다.

마약으로 찌든 인생, 승리의 길 발견했다

디딤돌선교회…제14차 재활 및 영성수련회 개최

디딤돌선교회(대표 송요셉 목사) 제 14차 재활 및 영성수련회가 3일~6일(목)까지 다니엘 기도원에서 열렸다. 24명의 노숙자들이 참여한 이번 수련회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롬12:2)를 주제로 새벽기도회, 강의, 그룹 모임, 부흥회와 통성기도 등의 순서가 진행됐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로날드 딘 씨는 "강사들의 메시지가 나의 마음에 깊은 충격을 줬다. 특별히 요나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수련회를 통해 세례를 받은 페란도 라모스 형제는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 주셨다.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마약으로 인해 노숙자가 된 죤니켓시 형제는 "나는 내가 마약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진행된 세례식에서는 3명이 세례를 받기도 했다.

디딤돌 선교회에서는 일년에 4차례 재활 및 영성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훈련 받은 노숙자들은 리더로 임명 받고 직접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에 지속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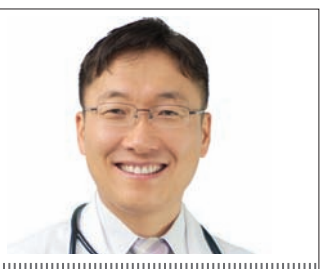
한편 디딤돌선교회는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270여 명의 노숙자 리더들을 훈련시켰다.

제15차 훈련은 오는 12월19일(월)~22일(목)까지 다니엘기도원에서 열린다.

[아틀란타 앤더슨 김 기자]

조동혁 박사 칼럼 5

조동혁 내과/신장내과



내일을 위한 오늘의 건강 돌보기

이번 주, 필자를 찾아온 한 환자분을 보면서 또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 이 글을 쓴다.

70세 되신 남자 분이신데, 그동안 먹고살기 바빠서 자신의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일만 하고 사셨다고 한다. 행정상의 문제로 메디케어를 70이 되어서야 받고는 지난 달에 필자를 처음으로 찾으셨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 년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두 번씩이나 졸도를 경험한 일이 있으셨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괜찮아져서, 그리고 의료보험도 없다보니 병원 진찰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고 한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몸이 약간 피곤하고 가끔 붓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려니 하고 지나치다가, 올 여름 메디케어 수혜자가 되고서야 필자를 찾아 진료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필자가 진찰한 결과, 심전도에는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심장 정밀검사를 꼭 받으실 것을 권고해 드렸다.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내원할 것도 당부했다.

하지만 한달이 넘어서 다시 내원한 이 환자분은 선교활동을 갔다오느라 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목감기가 걸렸으니 감기주사를 한대 놔달라고 하셨다. 하루 전에 다른 병원에 가서 감기주사를 맞았는데 낫지 않아서 다시 오셨다고 했다.

필자는 감기가 아니라 심장에 문제가 있으셔서 목 쪽이 아픈 것 같으니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그 환자분은 앰블란스 이용을 거부하고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곧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집에 가서 아내와 느긋하게 식사를 마친 후 오후 늦게서야 응급실로 가셨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환자분은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쓰러져 호흡정지가 와 그날밤 응급수술을 받으셨다. 심장 수술을 하긴 했지만 너무 손상이 심해 현재 사경을 헤메고 계신 상태다.

그 환자의 아내에 의하면, 지난달 남편은 이제는 70이 되었으니 자녀들 생각, 돈 생각 모두 하지말고 자신 둘만을 위한 삶을 살자고 하며 안아주셨다고 한다.

그리고 한달 후인 이번 주, 남편은 아내에게 병원에서 필자가 걱정하는 병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전하지 않고, 오히려 병원에 갔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 말씀하셨다 한다. 그리고는 병원으로 데리러온 아내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여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했다. 그런 후, 아내에게 자신의 인생이 70살에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같이 못 있어 줄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시고는 응급실로 가자고 했단다.

먹고살기 위해 바쁘게 일만 하다보면 자신의 건강도 챙기지 못한 채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는 살만해지니까 병이 찾아왔다는 말은 의사를 하면서 환자들로부터 종종 듣는 말이다. 이럴 때 필자는 다시 되묻는다. "그 일, 그 사업을 왜 하십니까?"라고. 그러면 환자들은 모두 "먹고살려고"라고 답한다. 그런데 왜 죽으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하냐고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위의 환자분이 몇 년전 졸도를 했을 때 바로 의사를 찾아 갔었다면 진료비는 몇 백불, 정밀검사를 하더라도 2천불 정도면 됐을 것이다.

자동차의 트랜스미션이 안좋으면 3~5천불의 수리비를 쓴다. 그래봤자 그 차를 더 탈 수 있는 건 몇 년뿐, 그후 새차를 사게 된다. 그런데 새로운 몸으로 바꿀 수 없이 100년 동안 쓸 수 있도록, 몸과 생명 유지를 위해 망가져가고 있는 자신의 장기를 위해 몇 백불의 진료비가 아까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말기가 되어서야 그저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자신의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내일을 위해 오늘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해주고 싶다.

기독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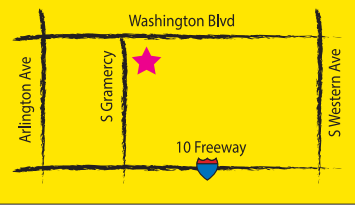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UPER AUTO DENT BODY INC & AUTOTECH
Super Autotech 수퍼 자동차 덴트 바디&오토텍
www.superautodent.com
자동차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보험, 토잉, 렌트카까지 원스탑 서비스! (24시간 대기)
Mercedes-Benz BMW LEXUS Audi PORSCHE HYUNDAI KIA Ford HONDA ACURA



T.323.730.1530 영업시간 : 월~ 금 (AM 8:00~PM 5:00)
233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18 (워싱턴 블루버드 + 그래머시 플레이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점(上)

창세기 21:1-2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예전에 모 방송에서 이슬람의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폄하하는 일이 있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여러 목회자들이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틀렸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근본과 과정 그리고 현실과 미래를 좀 알아보고 연구하면서 분석 비판하는 가운데 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의 복음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정통한 구원의 교리 진리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들에 잘못 휩쓸리는 영혼들이 지옥에 가기 전에 바른 진리의 복음으로 전도해서 구출해야겠다는 전도 사명도 일깨워야 합니다.

1. 하나님의 언약(言約)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도록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이라크와 쿠웨이트 국경지경에 있는 바스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미신 우상을 만들어 돈을 많이 벌었고 그 곳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2:1~3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이라는 조건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갔고 여러 가지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연단을 받으며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를 통한 자녀가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86세쯤 되었을 때에 사라는 남편에게 자기가 시집올 때 데리고 온 애굽 태생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후손을 잇게 하라고 주었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못낳아 주어서 미안하고 그 지역의 풍습이 일부 다처제가 보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돕는 배필로 부부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초보단계에 있었던 사라가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서 시집올 때 데려온 몸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어 아들을 낳게 하여 자기 아들로 삼아 남편에게 미안한 부담을 덜 수 있을까 했던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불행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면서 믿어지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안 믿는 세계의 풍속을 흉내내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이 약 사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불행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3년째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러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세기15:2~5)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후사를 약속하셨고 그에게 약속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핵심은 인류를 죄에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 하나님의 언약의 후계자(後繼者)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삭이 태어났고 아이가 자라 젖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와서 먹고 즐기는데 어머니 사라가 이삭을 지켜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희롱했습니다. 이때 이삭과 이스마엘은 열네 살 차이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고 평생을 잘 살 수 있는데 이삭이 태어나서 자신의 신세가 망쳐졌다고 생각해서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그때에 사라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 합니다.

본문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도 귀한 아들이지만은 그 보다도 첫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갈과 함께 내어 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본문 12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이름이 유명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 주시겠다는 약속 중에 제일 큰 약속이 세 번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죄악에 찌들다가 지옥가게 되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 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이 새기 바쁘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들이 브엘세바 들에서 그 아들과 어머니가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에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집니다. 햇빛은 뜨겁고 사막은 타오르고 목도 타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을 것만 같아서 17살짜리 아들을 가시떨기 나무 그늘 아래다가 앉혀 놓고 어머니가 화살 한번 쏘면 가는 거리, 300M정도 가서 그 아들을 마주보고 앉았다가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부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피로 태어난 혈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마엘과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19~21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룬 나라가 아랍이 되었고 그 아랍이 여러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아랍 계열은 42개의 크고 작은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랍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서 거의 4천년 세월을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랍계열의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숫적으로 많음에도 이스라엘을 이겨 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시리라하신 메시아를 믿지 아니했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11:11~13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5:6에 보면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랍계열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계속〉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유년주일학교 사역자를 모십니다"

본 교회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갈보리 장로교회입니다
"유년주일학교"사역을 사랑과 헌신으로 담당할
Part Time **사역자**를모십니다.

유년주일학교

1. 자격요건
A. 신학교재학중 또는 졸업하신 분
B. 영어설교가 가능하신 분

2. 제출서류
A. 이력서 (사진포함)
B. 본인 신앙고백서

3. 접수안내
A. 보낼곳 : 이메일 12dchung@comcast.net
B. 마감일 : 2016년 10월 30일
C. 문의사항 : 정석표 장로 T(443)243~0061

갈보리장로교회
6800 Loch Raven Blvd., Towson, MD 21286
(담임목사 조 병래)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담임목사 청빙

(자격조건)
1. 담임목사 3년 혹은 부목사 5년이상 경력 있으신 분
2. 신 분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3. 기 타 : 한국어와 영어구사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가족사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2. 신앙 간증문 : 본인및 사모 가족소개, 성장과정과 신앙생활, 목회비젼과 철학
3.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CD 또는 DVD 2부
4. 추천서 2부(추천인 밀봉 후 날인요망)
5. 제출일시 : 2016년 10월 10일(월)~11월 5일(토)까지

(제출처)
LA HANMI CHURCH 청빙위원회
전화 : T(626)444-0058-9
주소 : 2727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email: lahanmichurch1@gmail.com
www.lahanmi.com

나성한미교회

●교육칼럼(10)

청소년의 다섯가지 사랑의 언어(5)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찾고 있기에 많은 혼란을 겪는다. 이런 청소년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잘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개리 챕맨 박사는 청소년에게 다섯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 words of affirmation(칭찬 및 긍정적인 인정의 표현), physical touch(신체적 접촉), quality time(양질의 시간), acts of service(희생하는 행동 및 모습), 그리고 gits(선물).

이번엔 양질적 시간(quality time)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다. 십대 자녀와 좋은 대화를 나누고 질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려면 평상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럼, 어떻게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제시한다:

1. 가정 안에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자.

마치 씽크 하수구가 막혔을 때 뚫는 것보다 아예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게 상책이듯 수시로 식사, 여행, 산책 등을 통해 자녀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자.

2. 일상시 자녀를 어린 아이 같이 취급하지 말고 "성장하고 있는 성인"으로 대하자.

부모가 부모의 권위를 일방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때, 자녀는 "난 엄마 아빠에게 점차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자녀가 스스로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비결이다.

3. 일단 자녀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려면 "너는" 또는 "너는 항상..."이란 말보다 "내 생각에…" "아빠의 의견은"으로 말을 시작하자.

예를들어 "네가 항상 이렇게 화나게 한다"를 "엄마/아빠는 네가 이렇게 할 때 화가 난다"로 바꿔보자.

4. 설교나 강의하듯 일방적으로 나무라지 말고,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라.

즉 설교같이 자녀에게 말하지 말고, 따뜻한 선생님같이 대해주자. 더 이상 어린 아이를 취급하듯 자녀를 다루지 말자.

5. 십대 자녀는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고 있기에 꼭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냥 시키는대로 해"보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으로 말하자.

좋은 시간을 십대 자녀와 함께 보낸다는 것은 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활동, 취미를 통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아이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대부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학교 운동팀 참여, 오케스트라 활동, 미술/아트 활동 및 콘테스트 참여, 발레나 댄스/치어 퍼포먼스, 교회 찬양팀 활동 등 이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부모가 운전함으로 섬기며, 오가는 동안 좋은 대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 퍼포먼스나 운동 경기를 관람하며 아이를 지원할 수 있다.

아이들은 부모가 시간을 내어 자신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많은 희생을 요구함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부모가 열심히 섬길 때 고맙고, 자랑스럽게 느끼며, 사랑받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다.

어른에게 "어렸을 때 부모에게 제일 실망을 느낀 점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상당수가 "나의 삶에 부모님이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답한다. 청소년은 겉으론 부모가 불편하다고 투덜거리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부모가 자신의 삶, 자신의 활동에 참여하고 관심을 보여주길 원한다.

부모의 지원과 참여는 "나에게 네가 중요하다"란 부모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음과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환경 및 이벤트를 만들어 보자; 하이킹, 낚시, 운동경기 관람, 콘서트나 이벤트 관람, 가족 여행, 산책, 영화보기 등. 이런 활동이나 시간은 부모가 원하는 것만 하지 말고, 아이의 생각, 흥미, 취미, 원하는 바 의견을 듣고 결정내리는 것이 좋다.

●정운길 칼럼(2)

덮어놓고 그냥 기뻐하세요



정 운 길 선교사
실버선교회 국제대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근본을 갖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만 기뻐하지만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어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 기쁨은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시32:11)라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라고 말씀하신다.

기쁨이 우리의 의무임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은 요시아 왕 때 왕족 출신인 기쁨의 선지자 스바냐(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다.

그는 그의 저서 스바냐 3장 14~17절에서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라'는 단어를 6번 사용하신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구원받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대목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할 길의 핵심도 기쁨이다. 그러므로 기쁨의 삶은 우리의 의무이다. 기쁨을 잃으면 성령의 역사도 멈춘다.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으로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기뻐 한다는 것은 기질이 명랑한 사람들이나 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적 감정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손으로 빚으셔서 만드신 인간들이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만 기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살전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울한 얼굴을 보이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J. W. 샌더슨은 "우울한 얼굴을 하나님께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신론과 같다" 고 했다. 느헤미아 선지자는 8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이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서 온다고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요16:22)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 기쁨처럼 잠시 잠간 있다가 없어지거나 빼앗기는 기쁨과는 달리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불안하고 부족하다. 왜냐하면 빼앗길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성경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러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가졌기에 사형수로 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은 항상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다.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4:4)

말에는 능력이 있다



정 우 성 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조심해서 잘 하고자 하지만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말이다. 필자도 목사지만 말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말은 환상이 아니다. 말은 꿈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하는 습관은 우리의 숙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 말을 구별해서 복된 말,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고 싶은 것 또한 우리의 소원일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입술, 고치고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께 의탁하자. 항상 꾸준히 기도함으로 말을 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말, 치료의 말, 생명의 말을 하도록 노력하자.

어느 교회에 말이 몹시 거칠고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 성도가 있었다. 어느날 담임목사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이제는 정말로 제 혀를 주님의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목사는 이렇게 답변했다고 한다. "성도님의 혀를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큰 제단이 없군요."

이처럼 우리의 혀는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에 실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귀는 두 개 만드시고 입은 하나 만드셨다. 두 개의 귀는 언제나 그 문이 열려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많이 듣고 살기 위함이다. 하나를 만든 입술은 방어벽을 두 개 두었다. 혀를 깊숙이 숨겨두고 이빨 벽을 두고 그 앞에 입술로 문을 닫아 두었다. 많은 말을 하면 손해 보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민수기14:28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성품, 그리고 인격을 걸고 맹세하는 한 말씀이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신구약 성경에 이 만한 강조어가 또 어디에 있을까?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맹세이다. 왜? 하나님이 직접하신 맹세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삶을 걸고한 맹세이기 때문이다.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일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소름끼치지 않는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고 또 가족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자. 혀에는 죽고 사는 능력이 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은 우리의 혀에 달려 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선한 말을 함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재미기독여성합창단
30주년 기념 음악회




단장 : 장영순


지휘 : 조한우


반주 : 조혜정

특별출연

소프라노 : 지 경

특별출연

바리톤 : 정재혁

2016. 10. 23(일) 7:30PM

윌셔연합감리교회
4350 Wilshire Blvd, LA., CA 90010

주관 : 재미기독여성협의회
주최 : 재미기독여성합창단

공연문의:(213)255-6124 장영순 단장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213. 434. 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프로지 골드
PRO-Z GOLD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LA 동부교협 특별 세미나



강사 : 한철호 선교사
- 전 선교한국 대표,
- 현 미션 퍼스펙티브스 대표

주제 1 선교적 교회 이야기

주제 2 한국 선교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역할

일시: 10월 28일(금), 강의 1: 오전 10시, 강의 2: 오전 11시
(모든 순서 후 점심 식사 및 교제의 시간)
장소: 유니온교회(김신일 목사), 교육센터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회비: $10

목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준비를 위해 참석 여부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성 동부교역자 협의회

회 장 : 송재호 목사
부회장 : 김신일 목사
총 무 : 최준우 목사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교회 공동의 책임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성윤리' 주제로 세미나 개최

'교회의 사회문화적 책임과 목회자 성윤리'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교회와 사회연구부) 주최로 18일 오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 새문안홀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선 백광훈 박사(문화선교연구원 원장)와 홍보연 목사(한국영성치유연구소 부소장), 조중신 소장(한국성폭력위기센터)이 발제했다.

먼저 백광훈 박사는 '성적 탈선과 목회자: 그 현상과 목회 윤리적 과제'를 제목으로 발제했다.

백광훈 박사는 발제를 통해 "목회자와 교인 간의 성적 탈선에는 본질적으로 힘의 남용의 문제가 있다"며 "목회자의 성적 일탈 행위란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부여한 윤리적이고 영적인 힘과 권위에 대한 신뢰를 깨는 행위"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건, 목회자가 성도와의 관계들을 통해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성도의 취약한 점을 이용하는 것이고, 자신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백광훈 박사는 "목회자 성윤리를 연구하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목회자들이 경고 사인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포춘(M. M. Fortune)이 언급한 다음의 여섯 가지 점검 사항을 제시했다.

△목회자가 자신의 책임의 범주를 넘어서서 많은 시간을 상담하는데 사용하고 있는가? △목회자가 휴가를 취소하거나, 가족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목회자가 대화를 성적인 주제들로 이끌어 가지는 않는가? △책임의 기제를 무시하지는 않는가? △평신도 리더십이 위축되지는 않았는가?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목회자에게 집중돼 있지 않은가?

그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구비한 공동체들이 목회자의 성적 비행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무엇보다 리더부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윤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목회자 역시 성 문제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자기인지"라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성 문제 앞에서 실패한 것처럼, 모두가 그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회자 성폭력의 발생 원인과 교회적 성찰'을 제목으로 발표한 홍보연 목사도 "성폭력은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행위"라며 "그러므로 성차별적인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회의 상차별적 요소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목회자의 성 윤리-종교기관에서의 성폭력을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발제한 조중신 소장은 "성폭력을 성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문제로 보고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때, 교회는 피해자의 치유와 영성의 회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교회 복지, 육의 세계 넘어서야

디아코니아 코리아 컨퍼런스…이어령 박사 '먹다, 듣다, 걷다' 키워드로 강연


이어령 박사가 강연하고 있다.

제3회 기독교사회복지 엑스포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주제 컨퍼런스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개최됐다.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교회 대사회적 섬김에 대한 평가와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교회 통찰'이라는 주제 아래 이어령 박사(초대 문화부 장관)가 '먹다, 듣다, 걷다' 세 가지 키워드로 '교회가 해야 할 복지'에 대해 성화를 보여줘 가며 한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이어령 박사는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으로서,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먼저 '먹다'에 대해 "당장 급한 문제가 먹는 것인데, 이 문제만 제대로 알아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다"며 "성경도 먹는 데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난다. 선악과로 시작해서, 부활하신 후 같이 식사하시며 빵을 찢는 것으로 끝난다. 마지막 설교에서도 함께 먹고 나누셨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먹고 나누는 것만큼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으로, 오늘날 교회가 '먹는다'는 것의 의미만 정확히 전달해도 복지가 달라질 것"이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먹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오늘날 크리스천의 메시지도 정치가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복지와 차원이 달라야 할텐데, 그것을 모르면 그들처럼 밥 나눠주는 것으로 끝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과 '만종'을 보여주면서, 이 박사는 "밀레가 그린 농촌 풍경은 대단히 목가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가난과 고통과 슬픔이 배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메시지를 모르면 이것을 사회주의적으로만 해석해서 약자에 대한 동정과 사회 부조리에 대한 고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며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의 메시지도 정치와 혁명으로 끝날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러한 차원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령 박사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숱한 갈등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는데, 이 비참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하는가"라며 ""만종' 그림 속 농부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수고뿐 아니라 햇볕과 비를 알맞은 때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음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박사는 "우리가 주려는 복지는 예수님이 권위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류가 아니다. 오해해선 안 된다"며 "진정 슬픈 자들, 죽어야 할 자들, 먹고 마셔도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이들을 구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다. 잘못 하면 교회의 역할을 육의 세계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듣다'가 시작된다. 이 박사는 "먹는 것만,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한 악마는 '빵만 주면 된다'고 했지만 빵만으로는 안 된다"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것이 양식이다. 듣지 않으면 배고프다. 죽는다. 여러분의 한동안 배고팠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마음이 고픈 것을 해결하지 못해 교회에 찾아온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마무리는 '걷다'였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이집트로 피난가실 때부터 갈릴리 바다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끊임없이 걸으셨다. 총 거리가 약 240마일 정도 된다고 한다. 걷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실천이자 나눔의 길이다. 말씀대로 진리와 생명의 길, 하늘과 영생으로 향하는 길이셨다"며 "말뿐 아니라, 사마리아라는 배타적인 땅을 관통하시면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진정한 사회복지는 걸어야 한다. 정신적이든 마음으로든 실제로든 걸어야 한다. 이 세상 끝날까지 걸어야 하고, 멈춰선 안 된다.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어야 한다"며 "교회로 나오는 걸음이 바로 '뉴 라이프'를 찾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아프리카 사람이나 자신의 원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일정 구간을 걷고, 그 걸음만큼 재정을 적립해서 물질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돕자는 '실제적인 제안'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대웅 기자

중동 자본 유입 우려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조성 철회 촉구

이슬람대책전국연합 외 87개 단체 반대 성명서 발표

이슬람대책전국연합(대표 임채영 목사) 외 87개 단체가 중동 자본을 끌어들이는 인천시의 한국판 두바이 '검단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인천시와 두바이 국영기업인 '스마트시티'의 한국 측 특수목적법인 '코리아스마트시티'(KSC)가 추진 중인 검단스마트시티는 인천 서구 검단새빛도시 내 470만㎡ 부지를 개발해 '업무, 창의, 교육, 여가, 주거' 등 5가지가 복합된 자족도시로 기획됐다. 지난 8월 코리아스마트시티는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를 유치하고 금융회사, 교육기관, 연구소, 호텔, 쇼핑센터, 병원, 백화점, 주거단지 등을 갖춘 글로벌 기업 도시로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예고했던 지난 4일 검단스마트시티 기본협약서 체결식과 5일 합동 기자회견을 취소한 상황이다.

이슬람대책전국연합 외 87개 단체는 이날 반대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가 자본금 53억 원에 불과한 코리아스마트시티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또한 코리아스마트시티 윤에리카 영지 대표가 추진했던 부산시 기장군 '체류형 복합관광단지'와 경기도 파주 '파주프로젝트 투자'가 각각 계약 자동 해지, 외국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무산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 이행능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윤에리카영지 대표와 함께 추진하는 검단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드러난 정부의 할랄 식품사업 성과 부풀리기에 대해서도 거론하며 정부의 할랄 산업 정책 철회도 함께 요구했다.

이지희 기자

201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교인수 줄던 교회가 '급성장'

죽어가는 교회 다시 살리기 위한 5가지 교훈



J.D. 그리어 목사
ⓒ크리스천포스트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더햄에 있는 서밋교회(Summit Church)의 J.D 그리어(J.D. Greear) 목사는 최근 처치리더스닷컴에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한 5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1962년에 세워진 서밋교회는, 2002년 J. D. 그리어 목사가 부임한 후 청년층이 급증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100교회 중 하나이며, '아웃리치 매거진'에서 지난 몇 년간 연속으로 "미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교회"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칼럼에서 그리어 목사는 "내가 목회를 하던 서밋교회(Summit Church)는 1962년에 설립됐다. 2001년에는 정체기를 겪으며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당시 목회자는 도덕성 문제로 사임 요구를 받고 있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또 "이전 목회자는 윌로우크릭교회 모델을 따라하려다 실패했으며 그보다 더 이전 목회자는 신학적으로 중도 노선이었다. 내가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4년 연속으로 참석자 수와 헌금이 줄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매우 암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것들에 대해 생명을 가져다주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부활시키는데 도움이 됐다고 믿는 5가지 교훈을 여기에 소개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내적인 전환이 외부적인 변화를 이끈다.

겉으로 보여지는 도덕주의적 변화만으로는 사람의 내면을 바꾸어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구조 등 외부적인 변화는 교회를 살려낼 수 없다. 여러분은 금속 물질에 먼저 열을 가하기 이전에는 이를 구부리기 어려울 것이다. 구부러지지 않거나 2개로 부러지기 쉽다.

믿는 자들의 내면적인 변화는 오직 복음을 전달함으로써 발생한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스스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려 할 것이다.

변화를 밀어붙일 때가 있고, 단순히 예수를 증거할 때가 있다. 언제 무엇을 할지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첫 사랑'을 잃은 교회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안정적이지 않은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다(계 2:1~10).

서밋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우리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 상대적으로 쉬었다.

2. 모멘텀의 힘을 경시하지 말라.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교회를 변화시키기가 더 쉽다. 이는 마치 움직이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이 더 쉬운 것과 같다. 교회를 포함한 어떤 단체라도 모멘텀은 변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핵심을 제공한다. 2,500년도 더 된 손자병법에서는 모멘텀이 장군에게 가장 가치있는 조력자라고 말했다. 작은 군대도 명분을 어떻게 잘 쌓아가는지 알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여러분은 먼저 교회의 성장을 막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꾸는데 초점을 둘 수 있다. 성장이 일어날 경우, 다른 것들을 바꾸기가 더 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새신자가 마음으로부터 거듭나는 기쁨을 경험하면, 안정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 다른 이들을 전도하는데 효과적인 일을 더욱 하고 싶을 것이다.

내가 처음 서밋교회에 왔을 때, 최소한 당분간은 신경쓰지 않기로 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이 가운데는 복장 형태, 음악 스타일, 예배 시간, 비효율적인(어떤 면에는 비성경적인) 교회 정관도 포함돼 있었다. 우리는 교회의 새로운 날을 알릴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바꾸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전도에 대한 일부 목표들을 세웠다.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리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했다. 이러한 전도집회 이후, 처음으로 흑인계 미국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다. 우리는 나중에 장로위원회 회장이 된 나이든 신사분도 만날 수 있었다.

처음 1년 동안, 나는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녀의 모국에서 2년 정도 살았었던 나는 그녀의 모국어로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세례식도 역시 그녀의 모국어로 진행했다. 이후 나는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물구나무를 서자고 제안했고, 사람들은 동의했다. 2년 안으로 우리는 모두 복장를 바꾸고, 우리의 재산을 팔았다. 또한 교회 정관도 다시 기록했다. 모두 반대하는 이들이 없었다. 내가 이를 첫 해부터 하려고 했다면 싸움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멘텀을 얻었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변화됐다.

일부 전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를 감사하라. 시편 기자도 이를 통해 그들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편 48편에는 고라의 아들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 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 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라고 말씀하신다.

3. 싸움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3번째 교훈은 2번째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가치와 상관없이 싸움을 하지 말라. 일부 싸움은(심지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해도) 더 교회를 살리기 위한 더 큰 전쟁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 미룰 경우, 여러분은 피흘림 없이도 다른 면에서 이길 수 있다. 어떤 전쟁을 언제 싸울지 알아야 한다.

나는 이 원칙에 있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완벽주의자 임원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권리'를 '방편'과 구별하지 못했다. 우리는 때로 이 문제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끄는 것에 관한 것임을 잊는다.

바울 사도는 이를 잘 이해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다. 그리고 스스로 법을 지켜나갔다. 때로는 외식하는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화를 내기도 했다. 바울 사도의 일의 기분은 무엇이 선교를 위한 전략인가에 있었다(고린도전서 9:19~27, 갈라디아서 2:11~15).

물론 이것이 공개적인 죄나 교회 내의 상당한 교리적 부패까지도 견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올바른 때에 올바른 전쟁을 해야한다는 의미다.

4. (선교사를) 보내는 문화를 만들라

보내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교회를 되살리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부활한 교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명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러한 정신을 나눌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한 가지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을 단기 선교로 보내는 것이다. 몇 가지 일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선교적인 삶에 대한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 우리의 정신이 교회의 혈액 순환 속으로 접근할수록, 더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교적인 원리를 적용하려고 할 것이다.

5. 교인들을 간절함으로 이끌라.

프랑스 작가인 생텍쥐페리는 "만약 여러분이 배를 짓고자 한다면, 더 많은 나무를 얻고, 일을 나누고, 지시하는데 많은 힘을 쓰지 말라. 다만 사람들에게 광대하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갈망을 가르치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 세상의 구원을 갈망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는 교회가 정말 부활한 때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같은 간절함을 가져오는 것은 복음의 선포이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한다. 그분은 부유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쏟아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를 쏟아붓게 된다. 복음은 바다 밑에서 잠을 자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깨운다. 그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가르친다. 이 긍휼함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났다. 복음은 우리에게 담대한 확신을 주고, 윌리엄 캐리의 말처럼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도전하게 한다. 강혜진 기자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카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영상예배) 9:30am,11:30am
수요코람데오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1515 S. Santa Fe Ave.,LA, CA 90021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美캠퍼스 대학생들. ⓒ미국 IVF 홈페이지

YWAM 소속 美 선교사, 니제르서 무장 세력에 납치돼

현지 미션스쿨에서…25년 간 교사로 헌신한 인물

英 크리스천투데이는 16일 니제르의 무장 세력에 납치된 美인도주의 단체 회원이 YWAM 소속의 기독교 선교사였다고 보도했다.

YWAM의 피트 톰슨(Pete Thompson) 대변인은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제프리 우드케 선교사가 14일 오후 9시경 니제르 북쪽 아발락에 위치한 자택에서 납치됐다"고 전했다.

톰슨 대변인은 "납치 당시, 투아레그족 방범대원과 국가경호원이 살해됐다. 우드케 선교사가 어디로 끌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의 납치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는 단체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르카타 마을에 위치한 레드우드코스트 미션스쿨(The Redwood Coast School of Missions)에서 교사로 봉사해왔다. 미션스쿨 웹사이트에 나타난 연혁에는 "제프리는 25년 동안 선교사역과 관련된 일을 해왔다. 그는 미전도종족인 니제르인들을 위해 이곳에 미션스쿨을 설립한 후 25년 동안 헌신해왔다"고 기록돼 있다.

니제르 내무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우드케 선교사가 납치된 후 말리쪽 사막을 가로질러 끌려갔다"고 전했다.

무함마드 바줌 내무부 장관은 "범죄자들은 현재 말리를 향하고 있다. 우리 군인들이 그들의 뒤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14일 오후 그의 집 근처에서 총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아흐메드 딜로 시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무장 괴한들이 방법대원을 죽인 후 우드케를 트럭에 싣고 갔다"고 했다.

니제르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납치는 이웃 국가인 말리에서보다 적게 발생하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말리에서는 정치자금 마련이나 인질 석방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납치가 종종 발생한다.

무장 단체와 이들과 연계된 범죄 집단은 치안이 약한 사하라 지역을 오랫동안 착취해왔다. 특히 말리의 보안 상황이 더욱 악화된 올해에는 이같은 공격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美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어떤 세부적인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법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교회, 혁신적이고 지속적일 필요 있다

호주 힐송교회… '내 구주 예수님'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둔 멀티사이트 교회인 힐송교회의 브라이언 휴스턴(Brian Huston) 목사가 유명한 힐송 곡 '내 구주 예수님'(Shout to the Lord), '오션'(Ocean) 등을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7일 오전 애틀랜타 조지아돔에서 열린 캐털리스트 컨퍼런스에 연설자로 나선 휴스턴 목사는 "교회는 혁신적이고 지속적일 필요가 있다"며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는 절대 영향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법을 창조함으로써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위험을 감수하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스턴 목사는 예배 및 교회와 관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 가지 분야를 힐송교회의 '예배 음악'에서 찾았다.

그는 "수 년 동안 우리는 과감하게 다른 방식으로 일을 했고, 일부 위험을 감수해 왔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하지 않는 특정한 요소들도 있다"고 전제한 뒤 "여러분이 힐송교회에서 더 이상 '내 구주 예수님'과 같은 찬양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1993년도가 아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이유로든 호주에 온다면 '내 구주 예수님'을 듣고 싶겠지만, 그 기회는 매우 적다. 심지어 '오션'이라는 찬양도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호주 힐송교회 브라이언 휴스턴 담임 목사.

또 "새로운 생명과 신선 함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곡들이 쓰여지고 있어서 좋다. 이에 수반되는 창조성을 사랑한다. 이곳 캐털리스트와 같은 컨퍼런스에서 느끼는 창조성을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캐털리스트 컨퍼런스'는 40세 이하 젊은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큰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로 '캐털리스트'(Catalyst)는 '촉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14년 전, 전통적인 교회 리더십이 40대에서 60대 사이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젊은 목회자들에 의해 시작됐다.

이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정체돼 있는 교회에 변혁를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위해 이 콘퍼런스를 시작했다.

강혜진 기자

수단서 '국가안보 위반' 혐의 받는 기독교인 위해 기도 요청

[1면으로부터 계속] 수단 대통령인 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바시르(Omar Hassan Ahmad al-Bashir)는 국제 형사 재판소로부터 기소 중인 유일한 현직 국가 지도자이다.

알바시르는 다섯 건의 반인륜적 범죄, 두 건의 전쟁 범죄와 3건의 집단 학살 범죄로 기소되어 해당 재판소에 의해 수배자로 간주되고 있다. 수단은 美국무부가 이란, 시리아와 더불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다.

야섹 선교사는 병원 관리자로 근무한 10년을 포함해 20년 간 의료 현장에 몸담아왔다. 이러한 경험과 단련이 그를 수단같은 나라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는 일에 적합하게 만들어 주었다.

야섹 선교사는 보코하람에게 공격을 받은 기독교인들을 의료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수단과 나이지리아에서 핍박 받는 기독교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순교자의 소리와 협력해왔다.

2015년 12월 수감된 후, 야섹 선교사는 가족들에게 보냈던 첫 번째 편지에서 "내가 있는 감방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지.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분께서 이 문을 열어 주실거야"라고 적었다. 순교자의 소리는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현존 미국 연방대법관 8명. 현재 스칼리아 대법관 사망으로 한 자리가 공석이다. ⓒ케이아메리칸포스트

美대선, 국가 未來에 미칠 影響

[1면으로부터 계속]이에 따라 매번 대선 때가 되면 미국의 보수와 진보 진영은 고령의 연방대법관이 사망하거나 은퇴할 경우 자신들의 입장과 가치를 대변하는 연방대법관을 세우기 위해 각각 공화당,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며 선거운동을 펼쳐가고 있다.

이번에는 낙태와 동성결혼을 반대했던 보수 성향의 앤토닌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이 지난 2월 사망한 후 공석이 된 1개의 연방대법관 자리와 다른 연방대법관 3명이 각각 83세, 80세, 78세의 고령이라 예기치 못한 공석 및 그들이 은퇴할 가능성이 높아 차기 대통령은 최대 4명의 연방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으로 되어 있다.

공화당의 트럼프는 지난 5월 11명의 연방대법관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들 혹은 이런 사람들과 같은 판사들 가운데 연방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11명은 연방항소법원 혹은 주대법원 판사들로 모두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판사로 임명된 사람들이며 동성결혼과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 판사들이다.

반면에 동성결혼과 낙태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클린턴은 트럼프가 밝힌 11명의 판사들 가운데는 동성애를 짐승과의 성관계 수준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동성결혼 합법화를 뒤엎을 판사를 연방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을 전통주의자라며 동성결혼을 찬성하지 않고 있고 성전환자들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자신들이 정한 성에 따라 화장실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노스캐롤라이나의 '화장실법'을 지지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인 사업가들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동성애자와 사업을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종교의 자유법안'에 서명한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를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세웠다.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내용의 종교의 자유를 확고히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반 동성애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대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미국 사회를 더욱 진보로 기울어지게 할 연방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 내 보수적 기독교인들 가운데 크다.

클린턴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른바 '평등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고 공립학교에서 성전환자 학생들이 자신이 정한 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이행,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클린턴은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성전환자의 권리가 옹호되도록 미국의 외교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케이아메리칸포스트]

러시아 보수 정교회 반발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공연 취소



러시아 정교회 키릴 총대주교
ⓒ위키피디아

러시아의 유명 도시에서 뮤지컬 공연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가 취소됐다고 러시아 관영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의 한 극장은 보수적인 정교회 단체의 고소로 상영 예정이던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공연을 취소했다.

세인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온 공연단의 이번 공연은 오는 11월 1일 러시아에서 7번째로 유명한 도시인 옴스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족, 사랑, 그리고 조국'이라고 불리는 한 지역 단체가 이 뮤지컬이 종교적인 신앙을 조롱했다며 고소를 제기했다.

러시아 관영 TV는 17일(현지시간) 공연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러시아에서 보수주의적 감정과 서양 문화에 대한 반감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제 엠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뮤지컬 공연의 취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며 러시아의 문화 생활이 국수주의적인 활동가의 방해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면서 반발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7일 전부터 발생한 일을 극화한 뮤지컬이다.

강혜진 기자

대규모 모술 탈환전
IS 연쇄 자폭 공격으로 극렬 저항

이라크 정부 및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군이 이라크 '제2 도시' 모술을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로부터 탈환을 위한 군사작전을 시작하자 IS가 '연쇄 자살폭탄' 공격으로 응수하며 강력 저항하고 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1시 30분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의 개전 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모술 탈환전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비견될 정도로 대규모로 전개되고 있다.

IS는 이에 대응해 모술과 바그다드 도처에서 연쇄 폭탄공격으로 맞섰다.

IS 성명서와 선전매체 아마크통신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IS는 이라크 모술과 바그다드에서 10건 이상 자살공격을 감행했다.

IS는 성명에서 모술 인근에서 이라크군과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 군대인 페슈메르가 부대를 상대로 9건의 자폭공격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선전매체 아마크는 IS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도 자살폭탄 공격을 벌여 이라크군 12명을 죽였다고 보도했다.

IS 소년 대원이 간첩 혐의로 붙잡힌 성인 남성 2명을 살해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IS의 대응은 이라크군과 페슈메르가, 미국 주도 서방 동맹군 등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자신들의 전력을 과시, 사기를 진작하고 내부 이탈을 막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11:0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cst# 212654040
PRT Tour & Consultin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플러싱 지사	로스엔젤레스 지사	토론토 지사	서울 지사
(201)313-0899	(718)928-3333	(213)739-2222	(647)686-6000	(02)739-0890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푸른투어 LA지사 오픈 경품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 당첨자118분 께는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한국관광공사 김태식 LA지사장을 비롯 여러분이 공정하게 추첨을 해 주셨습니다.



▶대 상 Mercedes Benz CLA 250	김현미 213-xxx-xx92	▶금 상 한국 왕복 항공권	최은순 - 8월 15일에 전달 완료 지현희 - 9월 15일에 전달 완료
▶1 등 미동서부 대륙횡단 14박16일 (1명)	김상수 626-xxx-xx93	▶2 등 캔쿤 3박4일(항공불포함) (2명)	방경자 213-xxx-xx86 / 이근태 213-xxx-xx96
▶3 등 미동부 6박7일(항공불포함) (3명)	윤제니 213-xxx-xx47 / 남희숙 213-xxx-xx67 / 김윤미 213-xxx-xx95		
▶4 등 미서부 6박7일 (4명)	이현수 213-xxx-xx44 / 이청자 213-xxx-xx62 / 김윤혜 310-xxx-xx28 / 이병호 323-xxx-xx50		
▶5 등 미니 아이패드 (5명)	데이빗정 213-xxx-xx68 / 송종식 213-xxx-xx13 / 이종옥 213-xxx-xx99 / 길김)아성 213-xxx-xx55 / 윤명자 213-xxx-xx77		
▶6 등 미동부 4박5일(항공불포함) (6명)	황옥규 714-xxx-xx69 / 장백산 213-xxx-xx94 / 강경진 213-xxx-xx65 / 이현주(수) 310-xxx-xx48 / 오금미 818-xxx-xx78 Nick Kim 213-xxx-xx40		
▶7 등 스마트 피트니스밴드 (7명)	양나리 213-xxx-xx48 / 유순자 213-xxx-xx49 / 김재임 213-xxx-xx50 / 장신정 213-xxx-xx45 / 고아라 213-xxx-x802 문지혜 213-xxx-x302 / 강기화 310-xxx-xx61		
▶8 등 BEATS 이어폰 (8명)	진정애 213-xxx-xx12 / Diana Yu 213-xxx-xx22 / 김진철 213-xxx-xx15 / 김혜령 909-xxx-xx56 / 이민아 213-xxx-xx42 김정숙 704-xxx-xx10 / 김인숙 213-xxx-xx58 / 정지나 213-xxx-xx27 /		
▶9 등 유니버셜스튜디오 티켓 (9명)	Keny Lee 213-xxx-xx50 / 송영화 213-xxx-xx00/ 김길수 213-xxx-xx66 / 이은후 213-xxx-xx11 / Aron Yang 213-xxx-xx16 최희라 213-xxx-xx49 / 김신자 213-xxx-xx53 / 홍순임 213-xxx-xx02 / 김태성 213-xxx-xx10		
▶10등 음이온 팔찌 (10명)	지영희 956-xxx-xx99 / 김병길 310-xxx-xx21 / 홍호동 213-xxx-xx67 / 전은지 408-xxx-xx45 / 안창자 661-xxx-xx78 이귀순 213-xxx-xx36 / 이재원 213-xxx-xx68 / 김미정 213-xxx-xx32 / 이전분 213-xxx-xx38 / 장상순 213-xxx-xx68		
▶기 타 - LA투어 (30명)	지희승 213-xxx-xx83 / 정윤주 213-xxx-xx21 / Julie Lee 213-xxx-xx88 / 이재경 213-xxx-xx77 / 김용상 213-xxx-xx56 Shawn Choe 213-xxx-xx99 / 전옥선 213-xxx-xx24 / 이소영 213-xxx-xx15 / 김숙영 213-xxx-xx08 / 김정순 714-xxx-xx31 김무영 310-xxx-xx79 / 신상희 626-xxx-xx48 / 김성애 815-xxx-xx68 / 김재숙 213-xxx-xx84 / 김화자 213-xxx-xx96 안희경 213-xxx-xx98 / 김은희 213-xxx-xx25 / 박보경 213-xxx-xx65 / 정혜리 424-xxx-xx92 / 서영애 213-xxx-xx65 백수정 714-xxx-xx92 / 이명순 714-xxx-xx64 / Jane 818-xxx-xx24 / 오지은 213-xxx-xx05 / 정문순 213-xxx-xx26 Vivian Lee 213-xxx-xx50 / 정영일 626-xxx-xx98 / 김인애 213-xxx-xx32 / 이창석 213-xxx-xx10 / 윤경주 818-xxx-xx20		
▶기 타 - 캐나다아이스와인 (30명)	옥시철 808-xxx-xx86 / 안인옥 818-xxx-xx11 / Ken Kim 323-xxx-xx17 / 손춘숙 562-xxx-xx20 / 최성섭 213-xxx-xx56 김태현 818-xxx-xx36 / 정희숙 818-xxx-xx58 / 최병삼 213-xxx-xx26 / 조유림 213-xxx-xx28 / 김찬호 213-xxx-xx56 지영김 213-xxx-xx62 / 장은숙 213-xxx-xx27 / Grace Lee 213-xxx-xx42 / 유리사 213-xxx-xx49 / 조 건 310-xxx-xx59 이범수 213-xxx-xx71 / 고현숙 818-xxx-xx16 / 김민자 213-xxx-xx40 / 제니퍼김 213-xxx-xx25 / 이순자 213-xxx-xx20 김선규 818-xxx-xx37 / 유춘수 213-xxx-xx06 / 김지욱 323-xxx-xx06 / 장은숙 213-xxx-xx27 / 박은영 213-xxx-xx18 김종철 213-xxx-xx64 / 사자영 213-xxx-xx23 / 유민아 213-xxx-xx86 / 김재석 323-xxx-xx06 / 지옥희 213-xxx-xx04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숙박

추가요금이 없습니다

- 같은 값, 다른 여행
- 화요일 라스베가스 숙박시 벨라지오 호텔숙박
- 한인 여행사 최초! 특급 벨라지오 숙박
- 여행의 품격, 호텔이 결정합니다.

3일	그랜드캐년 / 라스베가스	▶매주 화 출발	$299
4일	실속 4대 캐년	▶매주 화 출발	$389
6일	실속 미서부 일주	▶매주 화/토 출발	$599
7일	4대 캐년 + 요세미티 / 샌프시스코	▶매주 화/토 출발	$689

WELCOME TO Fabulous LAS VEGAS NEVADA

Special 1 Yashua Tree

조슈아트리 캠핑 1박2일

가이드+캠핑전문 쉐프와 함께



$279

▶출발 :10/29

❶ 내인생의 첫번째 사막여행
❷ 별사진, 별보기, 삼겹살 바비큐, 캠프파이어
❸ 책에서 만나던 사막노을, 사막여우, 사막토끼를 만나보세요.

Special 2 Alaska

알래스카 오로라 기차여행 4박5일

$1,300 +항공 $1,200 [얼리버드 할인] +항공

10월 31일까지 예약시 얼리버드 $100할인

▶출발 : 목요일 (12월 1일부터)

▶ 페어뱅스, 치나, 노스폴, 앵커리지, 커드우드

❶ 전세계 유일 '설국열차'타고 알래스카 횡단(약12시간)
❷ 호텔에서 편안하게 오로라 관찰
❸ 지구 최북단 설국에서 즐기는 노천온천
❹ 페어뱅스 역사박물관, 얼음호텔, 산타마을 등

Special 3 Grand Circle

그랜드서클 9대 캐년/ 세도나 6박7일

[특별출발] ▶11/24 $849

▶로스앤젤레스 – 라스베가스 – 윌리엄스 – 세도나 – 그랜드 캐년 – 페이지 – 파웰 호수 – 글랜 캐년댐 – 페이지 – 앤텔로프 캐년 – 모뉴멘트 밸리 – 모압 – 아치스 캐년 – 캐년랜즈 – 캐피탈리프 – 브라이스 캐년 – 라스베가스 – 캘리코 – 로스앤젤레스

미서부

세도나 투어, 알렉스 강 고문 동행

라스베가스/세도나 2박3일

▶월요일 출발 $249

▶바스토우, 라스베가스, 킹맨/셀리그만 윌리엄스, 플래그스태프, 세도나, 몬테주마 웰 피닉스, 팜스프링스, 로스앤젤레스

서부 여행의 새로운 표준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7일	$689
▶매주 월 그랜드 캐년/브라이스 캐년/자이언 캐년		
4대 캐년 (벨라지오 숙박)	4일	$389
4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7일	$689
▶ 4일 – 매주 화 / 7일 매주, 화 토 3대 캐년 + 앤텔롭 캐년		
그랜드 캐년/라스 베가스 (벨라지오 숙박)	3일	$299
▶ 매주 화, 토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4일	$389
▶ 매주 월, 목, 금, 토		
미서부 실속 여행 (벨라지오 숙박)	6일	$599
▶ 매주 화 토		



LA 일일투어

▶매일 출발 $59

(50인승 전용차량, 한인가이드, 중식불포함)

올베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헐리웃거리/로데오거리(차창관광)/산타모니카해변 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캐나다

Wow~ 천섬크루즈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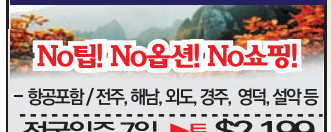
신상품 런칭기념

리얼 캐나다를 보다!

실속 캐나다 동부 5일 ▶매주 금 ~~$1,399~~ $1,099

토론토, 천섬, 몬트리올, 오타와, 나이아가라, 올드퀘벡(어퍼/로워타운), 총독관저, 캐나다 연방 의사당, 와이너리 (캐나다 아이스와인 시음까지) 방문

한국



– 항공포함 / 전주, 해남, 외도, 경주, 영덕, 설악 등

전국일주 7일	▶토	$2,199
서남부권 4일	▶토	$1,699
한려수도일주 3일	▶월/금	$1,699
남해안 일주	▶월/금	$1,499
평창 올림픽/강원 3일	▶수	$1,549

녹십자 퍼펙트 건강검진

건강검진+리무진+강남소재 호텔숙박



퍼펙트 플러스 검진 $530 건강검진만 $370
신체측정, 안구, 구강, 심전도, B형간염, 흉부X-ray, 소변검사, 혈액정밀검사, 갑상선기능, 상복부 초음파, 위내시경

퍼펙트 골드 검진 $600 건강검진만 $440
플러스 퍼펙트 건강검진+수면대장내시경

미동부

$100 상당의 3대 옵션 포함

1) 자유의 여신상
2)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장료
3) 안개속의 숙녀호 탑승

명문대 탐방 5박 6일 ▶화,토 $1,090
브라운 / 예일 / 하바드 / MIT / 프린스턴 / 유펜 / 존스홉킨스 / 콜롬비아

명문대 탐방 7박 8일 ▶수 $1,160
브라운 / 예일 / 하바드 / MIT / 프린스턴 / 유펜 / 콜롬비아 (나이아가라)

① 재학생 투어 총 3회 〈예일/하버드/유펜〉
② IVY 전문 가이드와 함께 캠퍼스 투어
③ 4명 이상 출발

"푸른투어는 동부여행도 직접 운영합니다"

실속 미동부 5일 (뉴욕/워싱턴 DC/나이아가라)	▶매주 수/토	$7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 6일 (미동부 5일 + 토론토/천섬)	▶매주 수/토	$8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7일 (미동부 5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4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보스턴 8일 (미동부/천섬 6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미동부/천섬 6일 + 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보스턴/캐나다 10일 (미동부/캐나다 8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299 (항공포함)

올랜도 특별상품

디즈니, 유니버셜 등 에버글레이드 에어보트 ▶매주 화

올랜도 3일 $799 4일 $899 5일 $1,399
마이애미 3일 $849 4일 $949
올랜도/마이애미 4일 $1,399 5일 $1,499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10)

마사다…자유를 향한 최후의 항전지(下)



◀마사다와 회당

마사다의 특성상 회당은 기도처나 마을회관으로 사용되었을 것

2천년 동안 감춰졌던 요새, 마사다



오늘날의 마사다▶

◈ 마사다(Masada)와 회당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주거지 어느 곳에나,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반드시 있는 곳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회당이다. 회당은 때로는 마을 회관과 같은 기능으로, 때로는 성경공부를 하는 곳으로,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법정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마사다라는 곳의 특성상 이곳의 회당의 주된 기능은 기도를 하거나, 마을 회관과 같은 기능이 훨씬 더 강했을 것이다.

로마군에 대항하여 싸우던 그 긴 전쟁이 끝나기 전 마지막 날 밤이었다. 시카리의 지도자였던 엘르아살이 모든 가장(家長)들을 이곳 회당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다.

최후가 다가온 날 저녁에 엘리에젤은 용맹스런 동료들과 모든 요새 안의 유대형제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였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진리되시고 정의로우신 인류의 주인이신 오직 한분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가겠노라고, 그리고 절대로 로마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로마군은 총공격을 해 올 겁니다. 형제들이여, 우리의 아내가 능욕을 당하기 전에, 우리 자식들이 노예가 되기 전에 죽음으로 자유를 선택합시다… 우리는 로마인들을 대항하여 들고 일어선 첫 번째의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지금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마지막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예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힘이 있을 때에 용감하게 자유인으로 죽읍시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법에 자살은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르아살은 항아리를 깨뜨리고 깨뜨린 항아리의 파편에 가장들의 이름을 쓴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서 순서대로 자기 가족들을 모두 죽인 후에 다시 회당으로 돌아오는 거다. 마지막 가장들만 남았을 때에, 열 명을 선택해서 다른 이들을 죽이고, 나머지는 서로 죽여주기로 했다. 마지막 한 사람만이 스스로 죽어야했으니, 사실 그 한 사람이 960명의 모든 짐을 다 짊어졌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예로부터 전쟁에서 내가 남긴 물건은 적군의 보급품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물은 쏟아 버리고, 먹을 것들은 태워버리고, 화살은 꺾어버리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엘르아살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 먹을 것을 그대로 두라고 한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싸울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을 로마 군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간곡한 연설에 일부는 동조하였으나 가족들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일부가 망설이자 재차 연설하게 된다.

"우리는 로마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한분만 섬겼소.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는 자유롭고 고귀하게 죽을 수 있게 되었소. 살아 노예가 되어 치욕을 당하는 것보다(중략) 우리의 자유를 위한 고귀한 선택을 하도록 합시다" "세상에서 자유를 추구하면서 영원한 자유를 꺼리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결국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이들이 최후로 읽은 성경은 겔37:1-6,11,12,21절이다.

자신들은 죽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고국 땅은 반드시 부활될 것을 확신하면서 죽어갔던 것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사본들은 시81:85; 150: 레위기 일부, 겔37장 신 33장, 34장 등이다.

마사다는 시편 18편에 나오는 산성, 요새, 바위라는 히브리어 뜻을 가지고 있다.

마사다는 실패한 땅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되어지는 성공의 땅이 된다. 여호와는 지금도 산성이 되셔서 믿는 자를 지켜주신다. 비굴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힘을 내야 할 것이다.

◈ 오늘날의 마사다

마사다는 1838년 사해 바닷가를 여행하던 두 미국인 학자 로빈슨(Robinson)과 스미스(Smith)가 우연히 바위산 위의 폐허 흔적을 망원경으로 멀리서 발견해 아름아름 알려지기 시작하다가 1963년 이스라엘 정부가 유대인 고고학자 야딘(Yadin)에게 발굴을 의뢰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마사다는 1963년부터 1965년까지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발굴되었다. 거의 2,000년 동안 이 요새가 사람의 손에 닿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이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 험난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은 관광객의 트래핑을 위한 샛길이 나 있으며 따로 케이블카도 설치되어 있다. 헤롯 대왕의 두 개의 궁전과 빗물을 저장했던 거대한 수조, 로마식 목욕탕과 유대 반란군의 막사, 창고 등이 발굴되어 복원되어 있고 로마군이 요새를 둘러 쌓았던 성채와 그 외곽에 로마군 막사의 유적도 발굴되어 있다.

위에서 로마군이 겪었던 고생을 그대로 겪은 발굴단이기에 마사다 발굴 작업은 세계 고고학계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발굴 작업으로 손꼽힌다.

이스라엘 국방군 장관이었던 모세 다얀은 이곳의 고대 신화를 이스라엘 국방군의 상징으로 보고 신병훈련을 마사다에서 끝마치게 했다. 부대에서 이곳까지 명예스러운 행진을 하며 밤에 이곳을 올라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게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하는 의식을 한다.

유대인들의 결사항전 정신의 상징이 되어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두 훈련소에서 퇴소할 때 이 요새의 정상에서 "마사다는 다시 함락되지 않는다!"고 외치면서 전의를 다진다고 한다.

케이블카를 통한 관광도 가능하며, 근처 박물관에 있는 복원 모형은 매우 세밀하다. 심지어 요새의 수로 구조를 보여 주는 모형에는 실제로 옆에 물을 부어서 체험해 볼 수 있다. 대신 문 닫는 시간이 4시로 운영시간이 매우 짧다.

마사다 요새는 지형자체가 450미터에 가까운 고지대인데다가 남북 길이 650미터, 너비 300미터 평균 120미터인 평평한 마름모꼴 정상이라 사람이 거주하기 편안한 장소다. 사방이 절벽인데 올라가는 장소도 좁은 길 하나뿐이라 현대에서도 케이블카를 제외하곤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편이다. 간혹 젊은이들은 걸어서 올라가기도 한다. 필자도 고대의 길을 따라 동쪽에서 한번, 그리고 서쪽 로마군 진지 능선을 따라 올라가 보기도 하였다. 동쪽으로 오르는 뱀 길은 꼬불꼬불 2시간 정도 올라야 한다. 보기에는 가깝지만 강렬한 태양아래서 끊임없이 올라야 하는 고된 길이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저술한 유대 전쟁사에선 마사다 항전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마사다에 대한 기록이 이것뿐이라 믿는 사람이 없었단 점이 특유의 지형과 더불어 늦게 발견하게 한 이유가 되었다. 심지어 요세푸스는 유대인을 배신하고 로마에 붙은 사람이었으니…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으로서 사해 쪽아래에서 케이블카(84인승)을 타고 5분이면 정상으로 올라간다,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동쪽에 만들어진 거대한 물 저장고를 볼 수 있다. 고대에 물 저장하는 신기한 방법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출입문으로 올라가면 마사다 요새 전체를 볼 수 있다. 곳곳 마다 놓여있는 모형도를 보고 안내인이 설명하는 모습들도 보인다.

발걸음을 옮겨 채석장을 지나면 요새의 창고지역이 나타난다. 거대한 요새의 병사들과 관리들을 먹이기 위한 식량창고와 무기 창고 등이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모습을 본다.

헤롯의 사우나탕은 전형적인 로마스타일의 목욕문화를 보여준다. 이곳을 지나 북쪽 궁전으로 나아가면 발밑에 아스라이 보이는 로마군의 진지들과 방어선들이 눈에 들어온다. 3층 궁전에서 북쪽으로 눈을 돌리면 잡힐 듯 다가오는 엔게디의 모습이 보이고, 북서쪽으로 마온 황무지, 십 광야, 유대 광야 등이 보인다.

이제 길을 따라 서쪽으로 가보자. 서쪽 저수지가 있고 회당이 있다. 최후의 연설이 있었던 곳이며 요새의 거주민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기도하던 곳이다. 회당 옆 부속건물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 구멍 뚫린 집이 보이는데 비둘기집들이 있었던 곳이다. 연락용으로 키웠으리라 생각된다.

마다사 중간부에 가면 서쪽 구릉이 보이고 로마군 진지가 보이고, 돌 포대도 보인다. 로마군들이 쏘아올린 돌 포탄들을 지금도 이곳에서 혹은 아래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비잔틴 문을 통과하여 로마군 진지를 향하여 내려가는 길도 있다. 서쪽 궁전은 천연 돌로 만들어진 2,000년된 모자이크를 볼 수 있고, 남쪽으로 계속 가면 거대한 저수지와 묘지, 비들기집 등을 볼 수 있다. 마사다에서는 에스겔의 소망도 보고, 다윗도 만나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필자와 함께 가는 영성나들이
이스라엘-요르단
2017년 2월 14일~25일
***문의: 213-505-1583**
***이메일: iskms@hanmail.net**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CD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환영배너 스텐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탑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junim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1.전도용품 세일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 전도물티슈 ✦
✦ 볼펜 ✦
전도용물티슈 1,000set($380) 고급항균 물티슈! 1set에 10팩가 들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이 구비되어 있으니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더욱 다양한 샘플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전도용 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설교시디앨범
전도대상자 또는 방문자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환영배너 (스텐드 포함 $65) Free Shipping!!!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실버시티보험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보험가입&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Part C)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커넥트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213-321-0302 Connie Kim(김 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골든씰 천연항생제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적용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2nd St. Oxford Ave. 3nd St.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프로지 골드
PRO-Z GOLD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 김만영 칼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5가지 방법



김 만 영 협동목사
예수인교회

예전에는 이민올 때 정착금 없이 미국에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살기 바빴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사이 아이들은 사춘기를 거쳐 미국사회에 적응하며 잘 성장해 갔지만 부모세대는 한국사회에 묶여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다. 문화적 차이로 부모 자식간에 가정불화가 확대되어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녀교육서의 고전으로 알려진 〈부모와 아이사이〉의 저자인 하임 기너트 박사는 책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을 끊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손님 대하듯 해야하며 아이들을 개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라고 권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의견 전달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부모로서의 체면을 세우면서 아이들에게는 지시에 따르라고 하며 중간에 말을 끊거나 무시해 버린다. 이러면 자녀들은 속으로 부모와 소통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로는 부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자녀교육은 좋은 부모가 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소개 해 본다.

가끔 시간이 나면 함께 점심을 함께 하는 LUNCH TIME 갖기를 권한다. 주중에 한번 시간을 내 함께 식사 시간을 가져보는 거다. 서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5섯가지를 자녀에게 나타내 보여야 한다.

1. 자녀들을 사랑하라(Love)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라. 콩나물이 물만 주면 쑥쑥 잘 자라듯 사랑의 물을 주며 잘 자라도록 많은 칭찬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랑이 토대가 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 자녀들에 대한 조건없는 사랑이 필요하다. 나의 의견을 제시는 하되 부모가 원하는 지시나 잔소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교육은 방법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의 잘못이나 불성실함까지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스스로 부모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포용하고 이해하는 자세로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 어찌보면 어리석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런 부모의 태도가 자녀들에게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2. 자녀들을 이해하라(Understanding)

자녀들을 격노케 하지 말라는 의미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짜증나게 하거나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해서 아이들을 낙심케하지 말라는 뜻이다. 빌 게이츠가 미국 명문인 하버드대를 다니다가 자퇴하고 취직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역시 아버지는 화를 내기보다는 몇날 며칠을 심사숙고한 끝에 부모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은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줬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겠다'라고 했을 때 '떠난다'는 말보다 '돌아오겠다'는 말을 더 믿고 기다렸다"고 〈포천〉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빌 게이츠와 그의 아버지는 지금도 통화를 자주 한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일방적 학습보다는 자녀가 원하는 길이 얼마나 많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 주는 교육법을 택했다.

3. 자녀들에게 주목하라(Notice)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나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 부모에 대한 불만을 나타낼 때가 종종 있다. 자녀들은 다른 가정과 다른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갖고 이상행동을 할 때가 있다. 부모는 끝까지 참으며 자녀들에게 주목하고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친구처럼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일방적인 가르침보다는 여러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자녀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한 방법이다. 특히 사춘기를 자녀로 둔 부모의 덕목은 오직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주목하여 끝까지 인내 할 필요가 있다. 사춘기의 부모들은 반응하지 말고 끝까지 참는 것이 해결책이다.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게 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부모가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 항상 주목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자녀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들이 무슨 걱정이나 해결해야 할 일들에 주목을 하되 먼저 부모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해결하거나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려라. 자녀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부모는 항상 주목해야 한다.

4.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라(Courage)

잔소리하거나 이웃집 아이들과 비교하면 안된다. 아이들이 사고를 치거나 밖에서 무슨 일을 겪었을 때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아이 편을 들거나, 반대로 무조건 아이를 몰아붙이는 극단적인 방법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가 잘못했든, 피해를 봤든 마음에 입은 상처를 생각해 아이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다.

5. 자녀들을 도우라(Help)

아이들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도록 한다. 물질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을 할 때도 끝까지 도와줘 부모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한다. 도와달라는 자녀의 요구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다른 특별한 방법을 찾지말고 부모로서의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다. 부모가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같은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한 5가지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써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할 수 있다. 어떤 교육적인 방침이나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것이 아니다. 부모을 공경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은 훈련으로는 사회규범을 지키듯 지킬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 IVY교육칼럼

대학 입학의 첫 관문 공통지원서



권 셸 비 디렉터
아이비 유학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대부분 거쳐 가는 관문이 바로 공통지원서(Common Application) 작성이다. 공통지원서는 미국 내 600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사용하는,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지원서 양식이다.

이 공통지원서는 한번 작성하면 똑같은 내용을 학교 지원 시마다 여러 번 작성하지 않아도 돼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그만큼 한번 작성하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음은 공통지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7개 섹션을 선정해 살펴본 작성 요령이다.

공통지원서를 작성하려면 www.commonapp.org에 접속해 어카운트를 만든 뒤 이메일 주소 및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양식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메일 주소는 첫 인상이다. 기존에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가 난해하거나 좋지 않은 뜻을 암시하거나 장난기가 있다면 새로운 이메일 주소 사용을 권한다.

1. Personal Information(개인 정보)

어카운트를 만들 때 입력한 개인 정보들이 나타나 있다. 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거에 다른 이름을 사용했는지를 묻는다. 모든 정보에 신중해야 한다. 이름은 꼭 법적 이름을 사용하도록 한다.

2. Geography(출생지 및 미국 또는 해외 거주 기간 정보)

출생국가, 출생도시, 미국에 거주한 기간,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입력한다. 만약 출생국가가 대한민국이라면 Korea, Republic of를 선택해야 한다. 바로 위에는 북한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 School(학교 정보)

맨 위에 학교 찾기(School Look-up)를 통해 현재 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찾아서 선택하면 된다. Find School을 클릭하면 화면 중앙에 Choose Your School 박스가 나타나며 왼쪽 School Name 박스 안에 학교 이름을 입력하면 쉽게 자신의 학교를 찾을 수 있다.

그다음 입학 날짜, 학교가 보딩스쿨인지 여부, 졸업 예정 날짜, 카운슬러 이름, 카운슬러 타이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묻는 말이 있다.

4. Education Interruption(학업 중단)

만약 고등학교 졸업을 제때 못하거나 중간에 학교를 옮기거나 사정상 휴학하는 등 공부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 처했을 경우 자신에게 해당되는 박스에 표시하면 된다.

5. Grades(학업 성적)

지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다. 공식 기록도 요청하기 때문에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GPA는 미국 대학 입학 사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학교 석차(Class Rank)를 정확한 숫자로 기록한다. 학교 석차에 가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 졸업 예정자 수, 누적 GPA, GPA 가산치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학교 석차, 졸업 예정자 수 등을 묻는 이유는 학생의 GPA를 총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다.

6. Tests Taken(시험 정보)

학생이 자진해서 고등학교 때 치렀거나 치를 예정인 각종 표준시험 점수를 원서에 기재하고 싶은지를 묻는다. Yes라고 대답하면 SAT I, ACT, SAT II, AP 테스트 등 다양한 시험 중에서 선택해서 기록하면 되고 계속 이어지는 시험 관련 추가 질문에 답변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고교 졸업을 위해 주정부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표준시험을 통과했는지 묻는 말에 답변해야 한다.

7. Personal Essay(개인 에세이)

명문 사립대 지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개인 에세이다. 자신이 가장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하나의 토픽을 정해 에세이를 작성하면 된다. 토픽에서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 에세이를 통해 '나'라는 사람이 잘 드러나게 해야 한다.

*웹사이트:www.MyIvydream.com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아기 예수는 오지 않는다
전병식 | 신앙과지성사 | 19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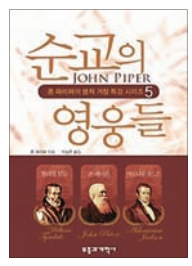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삶의 해답은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틀거리며 어딘가를 향해 나아간다. 가끔 앞서간 이들의 발자국을 보며 가야 할 길을 가늠하기도 한다. 길을 찾는 사람 전병식 목사가 동서양의 현자들의 이야기를 종횡으로 버무려 빚어낸 글들은 오롯이 길을 찾는 이들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 그의 눈을 빌어 더 넓고 깊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설교다운 설교
토니 메리다 | CLC | 448쪽



이 책 〈설교다운 설교〉는 본질에 충실한 설교가 되기 위한 과정을 다루고 있다. 어떻게 설교를 작성해야 하는가 하는 설교의 방법뿐만 아니라 설교자로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설교다운 설교가 되도록 인도해 준다. 따라서 이 책은 설교자라면 한 번은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설교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순교의 영웅들
존 파이퍼 | 부흥과개혁사 | 144쪽



윌리엄 틴들, 존 페이튼, 그리고 아도니람 저드슨, 이들은 수많은 순간의 고난과 매일 다가오는 죽음을 견뎌낸 신실한 대사들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하늘에서 영원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신실함과 희생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치를 열방 가운데 전하려는 열정을 강화시킬 것이다.

성경과 편견
랜돌플 리처즈 외 | 성서유니온선교회 | 3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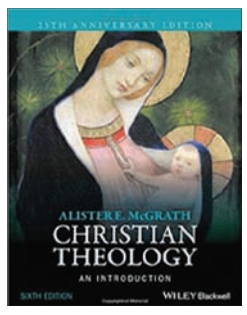
성경의 일차 독자는 지금 우리가 아니며 성경은 그 일차 독자들과 공유되는 문화적 전제를 지닌 책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투영해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본문의 의미를 오해하곤 한다. 〈성경과 편견〉은 그러한 우리의 문화적 전제를 빙산이라는 은유를 통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한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숲과 나무를 모두 봐야 한다"

기독교 신학에 대해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christian theology 6Ed
McGrath, Alister E.
Wiley-Blackwell | 520p

소개가 필요 없는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소개가 필요 없는 책이다. 이 책과 책의 저자가 유명하다는 점을 전제로 '6판'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를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6판은 성령론을 다루는 장을 따로 할애하였다. 1~5판에서는 성령론을 삼위일체론에서 부차적으로 다뤘는데, 이제는 주요 교단 속 오순절 운동의 성장으로 인해 성령론을 중요하게 다룬다.

이 책의 편집자와 저자는 독자들의 피드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내용만 분리해 하나의 장을 따로 뗀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게 다룬다. 기독교 신학에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 구원론과 비교해도 지면 할애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므로 신학의 큰 그림에서 성령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이 꼭 필요할 것이다.

둘째, 챕터들의 순서를 조금 바꾸었다. 5판에서는 삼위일체를 신론 뒤에 다루었다. 그러나 6판에서는 성령론 뒤에 삼위일체론이 등장한다.

사실 삼위일체론을 어렵게 만드는 신학이 기독론과 성령론이다. 특히 이 책처럼 역사신학적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경우, 어려운 삼위일체론이 성령론 뒤에 위치하면 아주 좋다. 삼위일체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미리 읽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설명을 조금 더 분명하게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넷째, 각 주제별로 탈 식민주의 신학, 페미니스트 신학, 세계 신학에 대한 부분이 더 보강되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기독교 신학에 대해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제목은 기독교 신학, 부제는 '개론'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개론서이다.

2장은 신학의 자료와 방법에 대해 다룬다. 여기서는 믿음과 신학의 정의에 대해 논의하고, 신학의 자료인 성경, 전통, 이성, 종교적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한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두 가지 종류, 계시 신학과 자연 신학, 그리고 철학과 신학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설명해준다.

3장에서는 기독교 신학의 내용 자체를 다룬다. 신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인간론, 죄론, 은혜론, 교회론, 성례론, 기독교와 세계 종교, 종말론에 대해 다룬다. 3장의 각 부분은 그 교리가 발전된 과정을 보여주고, 성경에서 그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얘기하며, 그 주제에 대해 어떤 관점들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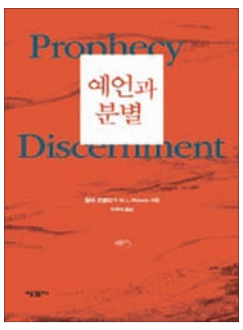
숲과 나무를 모두 봐야 한다고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더라도, 책장에 꽂아두고 한 주제에 대해 궁금할 때마다 펴볼 책, 그러한 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인터넷만 검색한 사람들, 신학교 입학 예정인 신학도들,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신학의 앞뒤 맥락을 잘 모르는 사람들, 학생을 가르치는 교재가 필요한 사람들 등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북스리뷰]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성경신학적 입장에서의 참예언과 거짓 예언의 구별



예언과 분별
월터 모벌리
새물결플러스 | 648쪽

본서의 제목이 '예언과 분별'이지만, 주제는 바로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이다.

◈예레미야

본서는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참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별의 기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저자는 첫째로 그동안 성경신학에서 해왔던 본문의 구조와 특징을 중심으로 각각의 예언들을 살피는 것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써 예언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모든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돌아옴'의 메시지로 분별하는 것은, 이기적 목적을 가진 선지자들 또한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종교심을 자극한 '돌아옴'을 외침으로서 '위장'과 '거짓'의 훌륭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옴'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예레미야를 분별의 기준으로 삼은 세 번째 이유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예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성전의 가치를 배제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역사 모두 성전 중심의 메시지들에서 심각한 오류들이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고, 성전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요소인 반면 예언과 메시지를 왜곡시킬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과 다소 격리되어 있는 예레미야를 분별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힌다.

마지막으로 예언의 역사성과 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 예레미야를 분별의 기준으로 정립했다. 선지자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역사의 현장 속에서 반응하는 예언이 상대적으로 잘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예언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예언자의 도덕성(진실성)을 분별의 기준으로 세우기 위함으로 보인다.

◈분별의 주제들

본서는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 엘리사와 발람,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렇게 4명의 인물을 대상으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 풀어간다. 각각의 내용들은 현장의 목회자들이 직면해야 할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다. 필자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과거에는 스스로 '거짓 목회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목회자로서 살아 왔지만, 현재는 시시때때로 나 자신이 거짓 목회자일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주님 앞에 점검하고 점검받는 시간들을 지속하고 있다.

본서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은 매우 일상적임을 발견할 수 있다. 본서를 자세히 읽어보기를 권면하면서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 아합왕의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 미움을 받아 초라하게 보이는 한 선지자 미가야는, 현실의 두려움에 굴복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변경하거나 바꾸지 않는다.

엘리사와 발람의 비교는 영적인 눈이 밝아짐과 어두워짐의 기준은 선지자의 신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고 좇아가는 선지자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선지자를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것보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목적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메시지 선포, 즉 말과 입으로만 사랑하는 자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성육신된 사랑을 실천해 내는 자, 바울은 십자가를 본받는 삶과 십자가를 이용하는 삶의 대조들을 통해, 참 예언과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고 있다.

본서의 약간 아쉬운 점에는, 현재 기독교의 아쉬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첫째, 본서가 논문들을 모아 편집됐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라 충분히 이해 되지만, 균형을 잡기 위해 독자들에게 미리 첨언한다면 예언의 분별에 대해 역사성과 도덕성으로 매우 논리적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논리성과 내용들 모두 필자는 동의하고 있지만, 이것이 예언 분별의 전부라고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당부하고 싶다.

둘째, 마지막 7장 '오늘날의 예언과 분별'에서 현재 다뤄야 할 아주 복잡한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저자는 기독교가 회색지대의 개방성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신학적 입장에서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예언이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언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나심이다. 하나님 편에서만의 예언이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 예언이 함께 만남을 이루어야 진정한 사귐과 교통, 그리고 열매가 맺어진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양날의 검

필자는 본서를 읽으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양날의 검'이라 생각한다. 양날의 검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그 중 하나는 바로 무찔러야 하는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여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덮어둬선 안된다. 현재 기독교 안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모든 메시지의 방향이 외부로만 향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일 수 있다.

본서는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의 진정성을 말하고 있다. 동일한 본문과 메시지 내용이라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메신저 자신을 위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단보다 더 무섭고 악랄한 것이 거짓(똑똑한 자기중심적)선지자이다.

강도헌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북스리뷰]

자유의 헌장으로 읽는 십계명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데칼로그
김지찬
생명의말씀사 | 496쪽

이 책에서 저자는 '십계명'에 대해 그 일반적인 뜻인 '열 개의 명령 또는 규범'이라고 보는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십계명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헌장으로 읽어야 한다'는 전제를 밝히며, 십계명을 일방적인 명령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간의 대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이렇듯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관점으로 십계명을 읽기 시작할 때, 이전에 만날 수 없었던 십계명의 더 깊은 이야기들을 찾아갈 수 있었다.

저자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설명을 통해 '열 개의 대화-데칼로그(헬라어)'를 하나씩 풀어간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감동으로 십계명을 하나 하나 읽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책의 내용이 어떠한지에 관해서는 실제로 책을 읽는 가운데 발견하기를 바라며, 전체적으로 이 책이 가진 특징들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첫 번째는 이 책의 학문적 탄탄함이다. 저자는 거의 500쪽 분량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고, 부록으로 6쪽 정도에 참고서적과 국내외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저자가 이 주제를 정리하고 발전시키고 한 권의 책으로 저술하기 위해 어떠한 치열한 학문적인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십계명이라는 단일 주제를 가지고 이 만큼의 분량으로 정리한 다른 글을 본 적이 없다는 것과 저자가 인용하고 참고하고 있는 자료들 가운데 최근 출간된 저작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구약의 중대한 주제 중 하나인 십계명에 대한 학자로서의 성실함을 읽을 수 있었다. 이후 이 주제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기 원한다면, 아마 이 '데칼로그'의 범위 안에서 또는 이 토대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다.

두 번째는 어려울 수도 있고 어쩌면 식상해질 수도 있는 주제들을 학문적 깊이를 가지고 풀어가는 과정을 독자들과 나누고 있음에도, 쉽고 편하게 읽혀진다는 것이다. 저자는 십계명의 한 단어 한 단어 차원에서 연구를 시작한다. 십계명 해석에 있어 오류가 무엇이었는지, 교회사 속에서 이 문장이 어떻게 읽혔고 현대를 사는 이들 속에서 십계명이 어떻게 읽히고 있는지에 대한 실례를 다루고 있다.

신기한 것은 한 계명을 정리하는 데 충분한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는 저자의 호흡을 너무 편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 그의 글쓰기의 탁월함이 아닐까 한다. 저자는 이미 이 주제에 대해 수십 번 이상의 강의를 다양한 대상들에게 한 적이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설명 방식을 터득한 것 같다. 적실한 예와 적절한 통계자료들, 다양한 근거자료들의 제시는 마치 저자의 강의실에 앉아 있고, 내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답해 줄 것 같은 상호소통의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문자로 통해 전달되는 글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달력을 경험한다.

세 번째는 각각의 장이 통일된 메시지로 연결되고 있지만, 동시에 각각 독립된 하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십계명 하나 하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한 편의 완벽한 기승전결 구조를 갖춘 논리들을 발견한다. 서론부터 시작해 그 서론에서 만들어낸 문제제기를 해결하는 정교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과 그 결론을 토대로 제안되는 적용들을 만난다.

전체 분량은 많지만, 한 편 한 편의 완결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주제별로 따로 읽어도 동일한 깨달음과 적용을 얻을 수 있다. 이 점에서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책읽기 수준을 고려한 좋은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데칼로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들의 묶음이 아니다. 데칼로그는 우리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자유의 대헌장'이다. 데칼로그의 문장 하나 하나를 살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이 깨달음이 주는 특별한 감동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제 이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해 주시는 바로 그 마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의 세상을 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성도됨을 증명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

조영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3.7.21
재능계발캠프
Super Brain Power
6 Keys to unlocking your hidden geniu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3.7.21
힐링캠프
행복을 찾아서
내 몸을 깨끗하게
텐트. 자연치료
디톡스. 별 보기
유황 온천. 두드림
1 Train and value all your intelligences.
내가 가진 모든 지능을 계발하고 소중히 여긴다.
2 Make greater use of any intelligence you are already tapping.
이미 계발하고 있는 지능이 있다면 더욱 활발하게 이용한다.
3 Appreciate just how smart you really are: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인정한다.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USA Tel:(949)329-8222
Email: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October 20, 2016 Vol. 73

Churches in Brea Unite in Prayer and Worship

BY RACHAEL LEE



Members of 12 churches in Brea gathered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for a night of prayer and worship.

Twelve churches in Brea, CA came together as one body to worship on Sunday evening.

The gathering was one of numerous joint church gatherings that have taken place once or twice each year in the suburban city, called 'Brea United in Prayer and Worship.' The recent gathering on Sunday took place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and was attended by some 200 African American, Asian American, Latino American, and White American members from Ambassador Church, Brea Baptist Church, Brea-Olinda Friends Church, Crossway Community Church, Firehouse of Prayer,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North Hills Church, and The Way: A Praise Chapel, among others. A dozen churches were represented in total.

In a word of welcome, Pastor Steve Chang of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said such gatherings are important as it reminds congregants "that we don't idolize or only have affections for our own churches."

"At this time, we only want to lift up our Lord Jesus," Chang said.

The night consisted of worship led by a joint praise team with members from Crossway, Living Hope, North Hills, and The Way; a time of prayer for racial reconciliation and for the pastors; and a time of communion.

"The type of unity Jesus prayed for was not agreement on every issue, but unity in Jesus himself," said Alan Frow, pastor of Southlands Church, who led the prayer on racial reconciliation.

"Jesus is the only hope for both the oppressor and the oppressed," said Frow. "For the unrepentant and the unforgiving."

He then invited people to come forward and share their own experiences of racism or discrimination. One woman said she is often treated with suspicion. Another woman opened up about her childhood memories of being bullied by other ethnic peers.

Attendees also gathered in groups of 10 to share in communion and also share their stories in more intimate circles.

"I think the biggest thing that we were looking to accomplish was to just listen to these stories, and understand that there are experiences that are different from ours, and we need to listen to them," said Pastor Richard Glasgow of Brea-Olinda Friends Church. "And lament with them, and validate that that was, or still is, wrong, and hurtful."

Meanwhile, Brea United began in the late 1990s when a group of pastors who had been meeting on a regular basis for fellowship decided to have their congregants come together for worship.

"This gathering is basically about how we are the church together in this city," explained Glasgow, who was one of the pastors to have started the gathering. Since then, the pastors have still continued to meet regularly, as they meet together on a weekly basis today.

"There's no competition, no rivalries. It's actually just the opposite," said Glasgow. "We see each other as allies and brothers."

During the weekly gatherings, pastors share on various types of topics, including those as casual as sports, those related to church such as curriculum for Bible studies or light and sound equipment, and those related to the current culture and politics.

"It's about being the church together and helping each other," he added. "There are plenty of people to reach in this city and in the surrounding community, and we can't have enough churches to make that happen."

Youth Students Learn About Healthy Teen Dating and Avoiding Dating Violence

Professionals from a non-profit visited a Korean immigrant church on October 14 to educate the youth members on healthy teen dating and raise awareness of abuse situations in dating.

The session, led by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took place at Holliston United Methodist Church in Pasadena, CA with members of the church's youth group and their parents.

The youth and parents were separated into two groups, and the youth in particular participated in a craft activity in which they used various materials to express their thoughts on healthy relationships, and on how they can help others to avoid dating violence.

"KFAM is planning on continuing to partner with Korean churches in the future to raise awareness of dating violence, and to host seminars on healthy relationships and healthy dating," said the organization in a statement.



Teens at the recent seminar on healthy dating relationships used various materials to express their thoughts on healthy dating, and how they can help others. (Photo: KFAM)

Korean Non-Profit Raises Thousands to Help Individuals with Alzheimer's



Somang Society hosted a yard sale on October 15 to raise funds to expand their programs to help individuals with Alzheimer's Disease. (Photo: Somang Society)

Staff and volunteers of a Korean non-profit in Southern California rolled up their sleeves to raise financial support for their programs for those with Alzheimer's Disease.

The non-profit, called Somang Society, hosted a yard sale on October 15 at La Palma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from 7 AM, and raised a total of $2,521.65 from the day's sales. The funds will go toward further developing and expanding Somang Society's ministry for those with Alzheimer's. Various members of the community donated their used items to the non-profit, and one couple donated 100 pieces of clothing for the yard sale.

The group had also hosted an art gallery for a month to fundraise for the same cause, through which Somang Society was able to raise $7,000.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Celebrates 23 Years

BY RACHAEL LEE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took a church group photo during its 23rd anniversary service October 23. (Photo: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located in Brea, CA, celebrated its 23rd anniversary on October 16.

What began as a 'mission church' established by a Korean immigrant church in 1993 with less than 10 members has grown to become an independent church of over 600 children, youth, and adults.

The service featured a message from guest speaker Yong Moon, the Korean American Director of Compassion International, and a choir performance.

Yong Moon encouraged the members to step out of their comfort zones.

"That holy 'uncomfortable-ness' will compel us to do even greater things for the kingdom of God," Moon said.

In an interview, Pastor Steve Chang, the lead pastor of Living Hope, said that in the beginning stages of the church, he hadn't imagined that the church would grow to become what it is today. As a mission church started by Good Stewards Church, Chang had imagined that the ministry would always continue alongside its mother church.

"I grew up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and I love the Korean church. My personal desire was to bring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together," Chang recalled.

But as both churches began to grow rapidly, Living Hope had become its own entity, Chang explained, as he added that he is now simply following how God is leading the church.

For the next chapter of Living Hope's journey, Chang said he wanted to provide another opportunity for the church to "engage in the Great Commission and the 'great compassion.'"

"Most of the time, churches and individuals seem to get overwhelmed, and we end up doing nothing, or things sporadically — but in the long run it doesn't help the cause as much," he added.

Hence, Chang said, the vision for Living Hope in 2017 is to partner with Compassion International and to identify a town or project in Central America that the church could engage in.

"We can't save the world, we can't feed all of the hungry, but through this we will know, 'I can take care of at least one child in the name of Christ.'"

Asian American Organizers Work to Secure Voter Turnout

BY RACHAEL LEE

As election day is quickly approaching, activists and leaders have been encouraging members of the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community to get out the vote.

During the last national elections in 2012, some 47.9 percent of eligible Asian American voters actually voted, according to the U.S. Census Bureau's data on voters who are ethnically Asian alone and Asian with other race combinations.

Organizers and civic leaders have pointed to a disillusionment towards or frustration with this year's candidates on the presidential ballot as a possible reason that Asian Americans may choose not to vote. In response, they're taking different approaches to encourage members of the ethnic group to vote.

For instance, Karin Wang, the vice president of programs and communications at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Los Angeles, said she encourages eligible voters to get out the vote because "the reality is that there's much more [than the President] that will be decided on."

Voters in California will vote on 17 state ballot measures, and voters in Los Angeles will also vote on seven county, city, and community college district measures. Among them include state propositions to repeal most of a previously passed proposition which required education in English only, which would now allow school districts to use any educational approach to teach English learners, including bilingual programs (Proposition 58); and legalize recreational marijuana for adults 21 years old or older (Proposition 64). Local measures include one that proposes to institute a parcel tax to continue securing funding for existing and new parks before current funding runs out (Measure A), and another that would increase sales tax in the county to invest in 'traffic improvement' projects including subway lines, bike paths, streets, and sidewalks (Measure M).

"State and local ballot measures will have more of an impact on our daily lives," said Wang.

Meanwhile, David Ryu, Los Angeles City Councilmember of the 4th District, said that the national ticket actually serves as a "clear reminder of our need for greater understanding and representation of minorities in every aspect of our society," and that this election has become "too personal not to vote."

In recent weeks, Asian American non-profits in the greater Los Angeles area have held numerous events and drives to encourage voter turnout.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and the Asian Pacific Policy & planning Council (AP3CON) hosted a press conference on October 13 during which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Asian American non-profits shared their stances on local and state ballot measures. In late September, voter registration drives were held across Los Angeles by a joint effort of Korean American organizations including the Korean American Coalition and the Koreatown Immigrant Worker's Alliance. The Korean Resource Center (KRC), based in the Crenshaw area of Los Angeles, also held a phone drive on October 17 to call eligible Asian voters.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30 AM &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Foster Kids in U.S. More Likely to Struggle With Mental and Physical Health Problems, Says Study

A new study which was published online on October 17 has found that children who spend time in foster care are at a significantly greater risk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health problems which range from asthma, obesity, and developmental delays to depression, learning disabilities, and behavioral problems.

"This is typically a difficult-to-reach population, so having access to descriptive statistics on their living arrangements, physical well-being and behavior provided an excellent opportunity to help identify the health challenges they face," said Kristin Turney, UCI associate professor of sociology, who co-authored the study.

Turney added that the team of researchers wanted to more fully understand how foster care affected children's well-being.

Foster kids were five times more prone to anxiety, seven times more vulnerable to depression, and three times more likely to hearing impairments, vision issues, and attention deficit disorder.

The tendency to suffer from developmental delays, learning disabilities, asthma, and obesity was twice as high among the foster children as compared to others who had been adopted from foster care, those living with relatives, single mothers, or even those living in economically disadvantaged households.

As many as 14 percent of the foster kids had depression, anxiety or other behavioral anomaly, while only 2 to 3 percent of American children suffered from these ailments.

About 18 percent of the foster care children had asthma, twice as high as the national average of 9 percent.

Experts said that though the findings presented in the study were not surprising, they did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the state the children are in.

"They expand our understanding, by really quantifying the risks these children face," said Julie Steele, an assistant professor of nursing at the University of Utah.

About one percent of all US children go to foster care every year, though estimates how that the actual proportion may be higher at around 5 to 6 percent.

As many as 10 percent of African American children and 15 percent of Native American children are likely to be placed in foster care annually.

The study was carried out by sociologists at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and published in the journal *Pediatrics*.

The research used data from the 2011-12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Health to compare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foster children with other children with permanent homes.

Over 900,000 kids' data was examined in the survey, out of whom 1.3 percent were identified as foster care children.

Study Shows More than Half of Americans Are Stressed Due to Current Presidential Election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released a preview of findings of their annual "Stress in America" survey which reveals that this year's presidential elections is a source of anxiety to more than half of Americans.

The study was conducted by the Harris Poll in partnership with APA on 3,500 American adults over the age of 18 from across the US.

According to the survey, about 52 percent of the people reported feeling stressed out this election season.

Both Democrats (55 percent) and Republicans (59 percent) said they felt anxiety watching one of the most hostile election contests in recent history.

"We're seeing that it doesn't matter whether you're registered as a Democrat or Republican -- U.S. adults say they are experiencing significant stress from the current election," said Lynn Bufka, PhD, APA's associate executive director for practice research and policy.

Bufka further noted that "election stress becomes exacerbated by arguments, stories, images and video on social media that can heighten concern and frustration, particularly with thousands of comments that can range from factual to hostile or even inflammatory."

About 38 percent of Americans attribute political and cultural discussions on social media as triggers of stress. Also, those people who use social media regularly (54 percent) to check on election news were more likely than those who use it infrequently (45 percent) to say that the election was a somewhat significant source of stress.

A similar proportion of men (51 percent) and women (52 percent) said that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is a source of stress to them.

"Matures" who were born before 1946 were the most likely to say that election is a very or somewhat significant source of stress (59 percent), followed by Millennials (56 percent), Baby Boomers (50 percent), and Gen Xers (45 percent).

APA has provided some tips to reduce stress this election, which includes reducing media exposure of claims and counterclaims by both Donald Trump and Hillary Clinton, turning off newsfeeds, and taking a digital break.

The APA also advises avoiding discussions on elections if they threaten to blow out into conflicts, and to be careful not to overindulge in discussions about the election.

The association also encourages people to try to make positive contributions to the matters close to their heart, instead of worrying about them.

The APA recommends volunteering in community and advocacy, and reminds people that apart from presidential elections, state and local elections also provide ample opportunities for civil involvement.

The APA finally encourages people to vote, as their voice will matter.

Pakistan's Supreme Court Adjourns Asia Bibi's Capital Punishment Appeal

The Pakistani Supreme Court has delayed the hearing of Christian woman Asia Bibi's blasphemy case, after a member of the bench recused himself from the case.

Justice Iqbal Hameedur Rehman said that he could not preside over the trial because he was earlier involved in the prosecution of Punjab Governor Salman Taseer's murderer, implying that there was an implicit conflict of interest in his hearing of Bibi's case.

Governor Taseer had publicly come out in support of Bibi, and advocated for reform in the blasphemy law. He was murdered by his own bodyguard Mumtaz Qadri, who was subsequently hanged. His capital punishment was seen as a progressive step by the liberals in the country, but it provoked street protests led by fundamentalists.

The court's three-member bench comprised of Justice Rehman, Justice Manzoor Ahmad Malik, and Justice Mian Saqib Nisar.

The matter has now been referred to the Chief Justice of Pakistan, who will employ a new bench that will not include Justice Rehman.

The hearing has been adjourned indefinitely, and a new date has not been set.

About 3,000 personnel were deployed in Islamabad ahead of the hearing, according to the police.

"Security is very tight in Islamabad all around today. Additional troops have been deployed on checkpoints and city junctions in general. There is also deployment of paramilitary force Rangers and FC [Frontier Corps] on some additional points," a police source told AFP news agency.

Thousands of hardliners in the country have issued death threat against her, publicly saying that they will target her if she is released.

Her family has also went into hiding after they received death threats.

Bibi is being kept in a solitary confinement to protect her from other inmates. Her lawyer, Saif ul Malook, also has received many death threats.

The 51-year-old farm worker has maintained that she never spoke indecently about religion, and that she was accused by her neighbors over personal strife.

Boko Haram Releases 21 Abducted Chibok School Girls in Nigeria

Boko Haram has freed 21 of the nearly 200 girls held by the kidnappers following a negotiation between the group and the Nigerian government, according to reports on Thursday.

The militant organization kidnapped about 300 girls from a school in Chibok in April of 2014. Dozens of the girls escaped on the way to the terrorists' hideouts by jumping off the vehicles.

Boko Haram had posted a video in August, which showed one of the girls saying that some of the kidnapped girls fell victims to the air strikes and about 40 of them had been married over to militants.

The AFP cited local media sources to report that four Boko Haram militants were released in exchange for the girls. However, the government denied any such deal.

"Please note that this is not a swap," said Information Minister Lai Mohammed. "It is a release, the product of painstaking negotiations and trust on both sides. We see this as a credible first step in the eventual release of all the Chibok girls in captivity."

The girls were welcomed by Nigerian Vice President Yemi Osinbajo.

"It's a very exciting news for the whole country," Osinbajo said.

"About an hour ago I met with the 21 who have been brought back. They are reasonably in good health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have been held," Osinbajo told reporters after the meeting with the girls.

The Nigerian government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girls were released following negotiations mediated by the Swiss government.

"Switzerland facilitated contacts between representatives of the Nigerian government and intermediaries of Boko Haram on the release of the Chibok girls," said Swiss foreign ministry spokesman Pierre-Alain Eltschinger.

The talks were also facilitated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of Africa [ICRC-Africa], which was a neutral participant in the negotiations.

"Today we transferred 21 of the #Chibokgirls and handed them to the #Nigeria government authorities, acting as a neutral intermediary," ICRC-Africa tweeted.

The girls are scheduled to be examined by a team of doctors and psychologists.

Boko Haram is also reported to have kidnapped thousands of other people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since 2009, but many of the abductions were not so widely reported in international media.

In seven years, the militant group has killed over 30,000 people and displaced over 2.3 million from their homes.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가을맞이 특별SALE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or 0 Down $169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1,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NEW
2016 HYUNDAI SONATA
Limited Technology
Package

Lease It For $88 +Tax or 0 Down $279 +Tax

All In Stock With
MSRP $33,345



36 Months Closed End Lease, $6,9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Its new design redefines the compact SUV."

NEW
2016 HYUNDAI
TUCSON SE FWD

Lease It For $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115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2,0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7 HYUNDAI
SANTA FE SPORTS 2.4 FWD

Lease It For $1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470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3,000 Lease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